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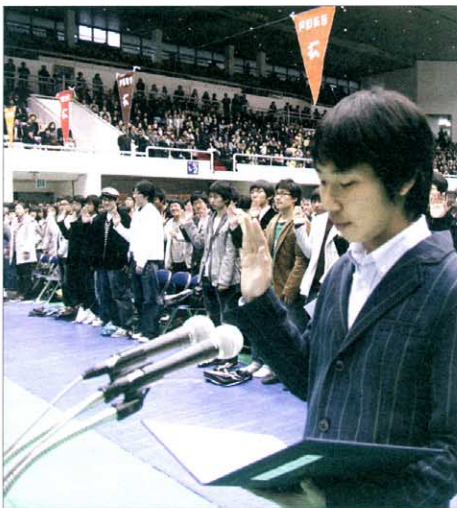


자랑스러운 관악대상 수상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관악대상 수상자와 함께

우로부터 林光洙회장, 金惠英(金道純 동문 대리, 김나)·金性均(金道純 동문 대리, 3남)·申明珪(협력부문)·嚴俊傑(潘基文동문 대리) 동문, 李英茂총장, 孫一樓상임부회장 <관리기사 3~4면>



입학을 축하합니다

전기컴퓨터공학부 李泓敏군이 신입생 3천3백97명을 대표해 선서를 했다. <관리기사 18면>

관악출추

글로벌시대의 국가경쟁력이 탁월한 인재 양성에 달려있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서울대의 세계적인 대학 순위가 문제되는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일 터이다. 좋은 대학은 훌륭한 교수와 우수한 학생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학의 파인 연구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재정이 넉넉해야 한다.

예산이 풍성해야 기초와 응용 전 부문의 연구를 지원하고, 보다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교 시설 또한 개선·보완할 수 있다. 교수와 학생 모두 좋은 여건에서 돈 걱정 없이 학문에 전념할 때 탁월한 업적과 뛰어난 인재는 탄생되고 대학 순위는 절로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국내 최고라는 서울대의 재정 형편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국고 지원금과 등록금(기성회비)을 합쳐봐야 연간 4천억원이 채 안 된다는 마당이다. 이런 상태로 연간 예산 2조원을 쓰는 미국 유수 대학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더욱이 올해엔 국립대학이 재정 부족으로 돈을 차입해야 하는(재난법인 '서울대발전기금'에서 35억

원) 사상 초유의 일까지 발생했다.

재정은 턱없이 부족하고 독자적인 학생선발권도 없는 상황에서 세계 63위에 오른 게 신기할 정도다. 그러나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미국의 국·공립대 장학생 비율은 77%인데 서울대는 겨우 42%다. 서울대의 계획처럼 70%로 끌어올리자면 동문들 개개인의 사회적 활약은 물론 모교와 후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제9회 관악대상'을 수상한 故 金道純변호사(참여)와 (재)관악회 申明珪이사(협력), 潘基文 유엔 사무총장(영광)은 그런 점에서 동문들의 귀감이 되고도 남는다. 금 변호사는 2002년 (재)관악회에 '牧村 5父子

모교 발전 위한 크고 작은 힘

특지장학회'를 설립했고,申이사는 전 재산에 가까운 15억원을 동창회 장학병딩 건립기금으로 기부했다.

미국의 스탠퍼드대는 지난해 9억1천1백만 달러, 하버드대는 5억9천5백만 달러, 예일대는 4억3천3백만 달러를 모금했는데 가장 큰 기여자는 동문들이었다고 한다.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의 중심에 있는 서울대 동문들이 자신의 오늘이 있게 한 모교를 위해 크고 작은 힘을 보탬 때 서울대는 명실공히 세계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차경호는설원원>

트리나무광장

‘반기문 파운데이션’.

올 초부터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의 이름을 내건 파운데이션을 이룬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보라. 아프리카 오지, 남아 빈민가, 중동 전쟁터에서 질병치료와 식량구호, 평화운동에 앞장서는 아름다운 모습들...

21세기는 상생의 시대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말뿐이다. 현실은 모자스 흠스와 리바이어던 상태가 더 심화되는 느낌이다. ‘승자독식’ ‘부익부빈익빈’ ‘강의강약의식’ 격정들은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딱히 찾지 못하고 있다.

양식 있는 지식의 자각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들이다.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이를 실천할 정교한 프로그램과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다. ‘반기문 파운데이션’. 한국 역사상 최고의 외교적인 자랑거리인 潘基文사무총장 선출을 기념해 그의 이름 석자를 딴 재단을 설립하자는 것이다. 내로라 하는 공익재단은 대부분 기업인이 세운 것들이다. 빌 게이츠가

세운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삼성·LG 등 기업이 이 일을 주관하고 있다.

기업이 세운 재단은 대규모 출연이 가능하고 잘 훈련된 우수인력을 동원해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반인 참여가 극히 제한되고 기업의 경영철학에서 벗어난 다양한 공익활동을 기대하는 제약이 있다. 그래서 ‘반기문 재단’인 것이다. 潘總장은 재임기간 역대 어느

총장보다 분장조정, 기아구호, 세계평화 정착에 많은 일을 해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동화에 우리 서울대 동문들의 크나큰 자부심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은 훌륭한 자산을 총장직 퇴임 후에도 인류를 위해 지속적으로 나누기 위해선 재단 같은 기구 없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게 필자 생각이다. 그래서 다시 ‘반기문 파운데이션’을 제안한다.

그러면 누가 이 일에 앞장설 것인가? 바로 우리 동문들이 나서길 바란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총동창회 이름으로 이 재단 설립에 주춧돌을 놓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난 1월 21일 밤 뉴욕 유엔 사무총장 임시공판에서 만난 潘總장은 필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파운데이션? 하면 좋지요. 그런데 누가 도내이션을 해야 가능하겠지요. 지금은 일기 초라 조금 지나야...” 필자는 작년 초 몇몇 언론인들과 潘基文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관련해 이런 얘기를 해 좌중이 박장대소할 적이 있다. “潘總관, 유엔 회원국이 반기문 사무총장 될 거고 안 반기문 안될 거다.” “반기문 파운데이션”, 반기문 되고 안 반기문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동창회가 한마음으로 반겨주길 진정 바란다.

‘반기문 파운데이션’을 아시나요?

李 相 起

한겨레신문

지역부문 편집장

본보 논설위원



관악시단

60에도, 봄!

朴 義 祥(경채61-65)

시인·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

접시를 먹고 나서는네

식당 조그만 뒷물

재나리꽃들 가득 출렁인다

내가 놀랐는지

와아— 소리치고는 이랬다

—했다 이제 남만 오시면

놀리는 재주는 친구도 있다;

—60에 욕심도 많으시

—셋 다 가지셔야,아,졌다,아?

나는 쉽게도 답한다 -60에 불이니까,아.

꽃을 한 송이 툇 건들며 한 마디 더 했다

—와라 와라 나도 이 밤에는

힐떡 힐떡

눔,이나 될까부다,아,아!

동문칼럼

미국의 대학입시 논술고사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인가? 그 주제를 정하고 이유를 기술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에 건너간 한 한국학생은 ‘고통(suffering)’이라고 주제를 정한 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헤어짐, 이혼과 미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느낀 고통을 기술한 뒤 이러한 고통은 앞으로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경험일 것이라고 자신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기술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필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통을 인생의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 그 학생의 고통의 깊이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으나 고통을 직시하고 그 고통을 바탕으로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을 높이 평가했다. 아마도 그 글을 읽은 시험관은 매우 높은 점수를 줬을 것이다.

지금 우리처럼 분단의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는 없다. 60년의 분단 속에서 이산과 갈등 등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고 후유증을 앓아왔다. 그동안 우리들은 서서히 분단의 아픔에 눈을 감게 되었고 만성화됐다.

북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대로 살고 남쪽 사람들은 남쪽 사람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고,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는 ‘정당 고르끼시 사고’를 가지게 됐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 수준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한 그 대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연초에 지인들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게 됐다. 이번 평양방문은 우리들에게 편하게 걸터앉아 삶에서부터 깨어나는 기회가 됐다. 평양 모습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힘을 썼던 우리의 경험과 또 북쪽 사람들의 미소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동자에 온 충기를 모았던 경험은 분단의 고통을 깨우쳐준다. 차창에 건 서리를 땀으로 문지르면서 넓게 펼쳐진 눈밭과 그 눈발사이를 한없이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오래 전 우리의 모습을 연상했으며 버스에서 가득 한 시민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투영해 볼 기회를 갖게 됐다.



金 聖 二

(사회사업65-69)

이화여대 교수

한국사회복지사회학회장

분단의 고통은 엄청난 상처이다. 너무 큰 상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고통을 잊으려고 오히려 눈을 감고 만성화시켜왔다고 생각한다. 60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고통을 직시할 만큼의 힘을 갖게 됐다.

우리는 이 고통을 회피하고 만성화시킬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직시하며 모든 국민에게 그 고통을 알리고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남쪽과 북쪽의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값진 분단의 고통을 승화시키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고통을 인식하고 나누는 프로그램이 만들어

복지는 ‘고통의 인식’이다

져야 한다. 이러한 고통해결 노력의 결과 북쪽, 남쪽 모두 발전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우리는 만들 수 있다.

미국에 간 유학생이 고통을 바로 인식하지 않고 외면했다면 소극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직시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었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이처럼 남쪽과 북쪽도 분단의 고통을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가질 때만이 우리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

서울大同會報

참고·협력·영광

발행인 林光澤

편집인 孫一權

편집주간 許 璵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일시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암7동 신4-2 영구공영 211호)

•전화 (02)702-2233 팩스 (02)704-8358

•e-mail snua@korea.com

초록위원 金哲漢, 朴世熙, 林樹才, 南仲九, 金銀蘭, 李樹均, 宋丙洛, 安炳瑞,

丘月煥, 宋銀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南,

李元龍, 金錦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慶, 姜天龍, 嚴基永,

朴時龍, 李京現, 尹在鎭, 鄭世洛, 李東植, 朴聖姬, 曹始龍, 朴繼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贊, 李東官, 趙在淵, 金銀蘭, 李容式, 李相起, 鄭恩珍, 蔡玉玉

편집장 安興贊 편집부 기자 表智媛, 金南柱 광고부장 金千鶴

총회 대성황... 林회장 “장학빌딩, 서울의 명소로 만들 터”

故 金道昶·申明珪·潘基文 동문 관악대상 수상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3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각계 동문 8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회 정기총회 겸 제9회 冠岳大賞 시상식을 개최했다.

본회 許 堧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문들의 성원에 힘입어 장학빌딩 건립 소요금액 3백억원에 육박하는 약정이 이미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각종 건축관련 인허가 사항과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인접상가와의 법적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말경에는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무엇보다 최상층에 꾸며질 명예의 전당”이 동문들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많이 참여해 서울대인의 단란된 모습과 대대손손 이어질 명예가 만천하에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회사 요지 참조)

모교 李茂榮총장은 축사에서 “현재 모교의 장기발전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모교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 계획도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한 뒤 “대전의 자승상과 재정확충이라는 두 임원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인과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입시 자율권 확보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니 이러한 원대한 꿈을 이뤄나가기에 동문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제9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에서 참여부문에 단체차장을 역임한 故 金道昶(법학43·47) 변호사, 협력부문에 재단법인 관악회 申明珪(생물교육48·54)이사, 영랑부문에 유인 潘基文(외교63·70) 사무총장이 각각 수상했다. (공직 및 수상 소감 4면 참조)

이날 참여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故 金道昶변호사는 대신해서 3남 金性均(경영82·86)동문과 장녀 金惠英(생약79출)동문이 대리로 수상했다. 영랑부문의 潘基文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으로 수상소감을 보내왔으며 상패는 5월에 뉴욕에서 열리는 재미동창회 평의원회에서 전달하기로 하고, 이날 정치·외교학과동창회 嚴俊傑(외교61·65) 수석부회장이 대리로 수상했다.

孫一根상임부회장은 수상자 선정 결과보고에서 “鄭夢周선생도 ‘포은집’에서 ‘鄭이’란 공경하지 않으면 이웃의 감복을 얻을 수 없다”고 한 말을 되새기면서 공경하고, 신중하게 후보자들을 심사했다”며 “금번 9회 수상자로 최종심사에 올라오신 분을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들여서 수상자 결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冠岳大賞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해 독일 만하임공립대 대학원을 졸업한 朴熙研(생약98·02 청장로화신대학과 교수)동문이 코이리나(생약98·02 부천시립합창단 상임



제39회 정기총회 겸 제9회 관악대상 시상식에 8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성악가 朴昭妍동문의 축하공연

단원)동문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오페라의 유령’ 중 크리스틴의 아리아 ‘Think of Me’, 뮤지컬 명성왕후의 주제가 ‘If I leave’를 비롯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열창했다.

이어 金在淳명예회장이 “봄기운이 완연한 날에 우리 동창회도 林光洙회장의 자상하고도 진실한 리더십으로 유례없는 생기가

흐른다”고 축하를 드 뒤 “지각변동을 느끼게 하는 작금의 동북아 정세 하에서 처리될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서울대인이 납득할 수 있고 대다수의 국민이 존경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동문들의 정성어린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한 중에는 장학빌딩 건립 경과 및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파워포인트로 프리젠테이션했으며, 본회 許 堧사무총장이 본회와 재단법인 관악회의 2006년도 결산과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업무를 요약·보고했다. 이어 朴英俊사장이 2006년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했으며, 내장일치로 동창회 2006년도 결산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 행사 중계와 영상물 상영을 위해 두리비전(사장 李玟煥·AMP 43기·AIP 13기) 기술진이 수고했으며, 참석자들에게 본회에서 제작한 지갑을 배포했다. (表)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총 7명 추천후보 심사

관악대상운영위원회(위원장 孫一根)는 지난 3월 5일 서울 한국연문재단 19층 묵연실에서 관악대상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9회 관악대상 수상자로 참여부문에 故 金道昶(법학43·47)변호사, 협력부문에 재단법인 관악회 申明珪(생물교육48·54)이사, 영랑부문에 유인 潘基文(외교63·70)사무총장을 선정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 추천된 3명(운영규정 제7조 3항에 의거 전년도 후보자 중 수상자 못한 후보자는 자동 추천)을 포함한 총 7명의 동문이 관악대상 후보에 올라 장시자의 논의 끝에 세 명의 동문이 최종 선정됐다.

이날 모임에는 林光洙회장, 孫一根운영위원장, 白文基·尹勳煥·朴熙研·李世中·金鎭澈·孔大植·徐桂枝·河權奎·南仲九·金鳳九·鄭興載·朴英俊·辛鈺雄·金仁圭·成榮奎·許 堧운영위원이 참석했다.

林光洙회장 개회사 (요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李茂榮총장께서 취임하신 후 모교의 개교 60주년 행사를 훌륭하게 잘 개최하셨으며, ‘려려와 함께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모교의 비전을 세계민방에 선포해 세계 유수대학들로부터 감佩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총동창회 역시 가장 심혈을 기울여온 장학빌딩 건립사업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와 보람을 거둔 것이지 않는 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지회 집행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본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많은 동문들의 성원에 힘입어 건립소요금액 3백억에 육박하는 약정이 이미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각종 건축관련 인허가 사항과 설계도 시의적절하게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그 대지의 측량결과 우리 땅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인접상가와 법적 문제 때문에 그것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말경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뜻있는 동문들의 열의를 수렴해서 장학빌딩 내에 음악연주홀과 미술공예 전시갤러리 등의 문화공간을 함께해 규모 면에서뿐만 아니라 콘텐츠 면에서도 어떤 건물에도 뒤지지 않는 서울의 명소로서 자랑할 수 있는 동창회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최상층에 꾸며질 명예의 전당이 동문들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많이 참여해 영구히 그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어 대대손손 이어질 여러분의 명예가 만천하에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모교와 동창회의 눈에 띄는 발전된 모습들을 지켜본 많은 동문들께서 그동안 모교와 서울대인을 향한 겸중되지 않은 평준화 논쟁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모래알 같았던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해 국가발전에 필요한 원동력과 이웃에 대한 Noblesse Oblige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결의로 모교와 동창회를 중심으로 단합된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하여 큰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사랑과 동창회에 대한 애정이 지속되는 한 세계 명문대학으로의 자리매김은 그리 요원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총동창회는 장학빌딩 건립모금이 마무리되는 대로 모교 李茂榮총장을 적극 지원해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으로 가기 위한 발전기금의 획기적인 증대를 이루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9회 冠岳大賞 수상자 세 분의 공적 및 수상소감

참여부문 故 金道稷변호사

▲1943년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해 1947년 졸업했다. 금동문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한국적 공법 이론의 개척에 평생의 정열을 기울여온 토대를 마련하는 학문적 성과를 비롯해 서울대인의 명예를 드높였다.

생전에 보건사회부 차관, 본교 부 차관, 법제처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는 동안 모교에 대한 지원으로 모교 사랑을 듬뿍 실천

했다.

1957년 법과대학동창회 초대 부회장을 시작으로 본회 고문,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 등 동창회 발전을 위해 50여 년간 활동했다. 2002년 금동문은 자녀들과 뜻을 모아 재단법인 관악회에 '牧村 5父子 특지장학회'를 설립했으며, 2005년 7월 별세했다.

▲金동문의 3남 金性均(경영 82-86)동문은 수상소감을 대신한 자리에서 "서울대 동문 가운



데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모교에 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고한지 2년이 다 돼가는 부전을 기억해주시고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진심으

로 감사하다"며 "생전의 부전께서는 모교를 졸업해 모교에서 교수생활을 하였고, 대학 밖에서 재직하시는 중에도 꾸준히 모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등 평생의 삶 속에서 모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부전의 유서 중 두 번째 항목에 '동창회에 출연한 牧村 5父子 특지장학금을 4남매가 계속해서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후배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쓰여진 대로 앞으로 모교와 후학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학발원 건립기금 朴成勳동문 1억 쾌척



지난 3월 15일 (주)모간 朴成勳(71세공회58-63)사장(사진)이 본회 장학발원 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쾌척했다. 차동문이 출연한 기금은 장학발원 건립 수 발전되는 임대수익금을 통해 '朴成勳특지장학회' 명의로 모교 공대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40년간 산업현장에서 기계가공·설계 등을 맡아온 차동문은 현재 자동차, 기계, 화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카본제품과 산업용 세라믹 단열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친환경 단열제 특허제품인 '수퍼울'을 생산하고 국내 에너지 산업 선진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차동문은 "明泰鉉선배님을 비롯해 여러 기계공학 출신 동문들이 정성을 보내는 것을 보고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달성공단 내에 공장이 있어 지방대생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다"며 "이 공계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협력부문 申明珪 관악회 이사

▲1948년 사범대학 생물교육과에 입학해 54년 졸업했다. 40년간 서울여상과 문영여중 교사로 봉직한 바 있는申明문은 2005년부터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로서 동창회 활성화와 재단법인 관악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왔으며, 첫 장학발원 건립기금 기여출연자로서 현재까지 가장 큰 액수인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사재 15억원을 동창회 장학발원 건립기금으로

쾌척했다.

부군 故 朴冠錫(화학교육47-51)동문 역시 동국대 교수로 평생에 후학양성에 매진했으며, 생전에 재단법인 관악회와 사범대학 동창회 발전을 위해 10여 년간 일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申明문의 부인은 사학자 申曉蘭(경성제대 26-29)동문이다.

▲申明문은 수상소감을 통해 "선친이신 申曉蘭동문께서는 중



동중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 모교 경성제대를 1회로 졸업하셨는데, 당시 교장선생님이셨던 故 崔東來 박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운을 폈다.

이어 "남편은 고향인 이북 땅을 그리워하며 통일의 날을 기다렸지만, 고향에 가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게 돼 그러한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평생 모은 재산을 기증할 좋은 곳을 찾다가 林光洙 회장이셨을 때 추진하시는 장학발원 건립사업에 기금을 출연하게 됐다"고 말한 뒤 "새로 짓게 될 장학발원에 길이길이 이름을 남기게 돼 기쁘며, 오늘의 이 상은 돌아치만 朴冠錫교수님의 영전에 바친다"고 덧붙였다.

영광부문 潘基文 유엔 사무총장

▲1963년 문리대학 외교학과에 입학해 1970년 졸업했다. 외무부에 입부한 이후 40여 년간 한국 외교의 선진화를 위해 힘쓰며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국가에 봉직했다. 한국인 최초로 올해 초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함으로써 국제외교무대에서 모교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潘동문은 국제 외교무대에서 평화 유지 및 인권 고양을 위해 활동하며, 회원국간의 이해관계

와 분쟁을 조정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으로 서울대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예를 드높였다.

그동안 오스트리아 대총장, 브라질 리오 플랑코 대십자 훈장, 페루 대십자 훈장 등을 수상했으며, 세계 외교가에서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우호를 증진하고, 한국교과 발전을 이끄는 데 크게 기여했다.

▲潘동문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영상으로 보면 수상소감을 통해 "그동안 서울대는 한국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자 상행에 따라서는 한국사회에서 시대의 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이러한 전통을 가진 동문 여러분과 함께 수확하였음을 자랑스러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후진국 개발의 촉진, 인권 보호라는 유엔 고유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 다부르, 중동, 코소보 등 주요 지역분쟁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기후변화문제 대응 및 후진국 개발 전략 개발을 위한 협의를 이끌어 나가는 등 유엔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원장동문 1천만원



지난 3월 5일 국제무역경영연구원 韓慶鎬(법학50-58)회장(사진)이 세 차례에 걸쳐 본회에 총 1천만원의 장학발원 건립기금을 출연했다. 韓동문은 개인 명의의 '기금장학회'를 설립해 장학발원 임대 수익금으로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회·관악회 상임이사회

부회장에 李俊行·愼昌幸동문 선임

'최고간호관리자과정' 준회원 영입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3월 16일 서울 송파동 롯데호텔 에메랄드에서 본회 회장단, 재단법인 관악회 임원, 각 단과대학(원)·특별과정 및 지방지부 동창회장, 본보 논설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 제149차·관악회 제99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동창

회 예산과 관악회 결산상 심의의 결했다.

許 謙사무총장은 "동문들의 정성에 힘입어 회비수입이 3년 연속 13억원대를 돌파했으며, 동창회와 관악회 수 수입분은 1백30억7천만원, 비용부담 52억6천만원으로 결산이 마쳤으며, 전체 실입은



李俊行동문

총 8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동창회·관악회 결산 6~7면 하단 참조)

林光洙회장은 장학발원 보고에서 "우리 땅의 일부를 침범한 인접건물과의 소송문제와 인권국제



愼昌幸동문

광항철도 보상사업소로부터 정화조 및 일부 부지 일시사용료를 지급받는 일단 해결되면 6월말경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건물이 완성되면 시가 7백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동창회 회칙 제5조 제2항(준회원은 전신을 포함한 각 대학(원) 중퇴자 및 단기연구교육과정 수료자로 한다)에 따라 간호대학 부설 '최고간호관리자과정(ANMP)' 수료자를 준회원으로 승인했다.

한편 본회 林光洙회장은 이날 장학발원 건립기금 모금운동에 적극 참여한 미국 June Commercial 李俊行(삼유공학48-54)회장과 교보생명보험 愼昌幸(의학72-78)회장을 부회장에 추가로 선임했다. (雙)

정기총회의 계절

각 단과대학·지부·학과·동기회

충북지부동창회

李輔載 회장 재선임



충북지부동창회(회장 李輔載)는 지난 3월 22일 충북 청주시내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 지하홀에서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吳世卓(법학49-53)교편, 충북대 林東喆(국문71番)총장, 청주지부 金二洙(법학72-76)법원장·魚秀龍(사법82-86)수석부장판사, 청주지검 李光珍(법학77-81)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李輔載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소극적인 자세로 누군가 먼저 나서주기만을 기다렸다면, 올해에는 참여정신을 가지고 동창회 활성화에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李輔載(법학58-63 연호사)회장(사진)을 재선출했으며, 활동이 미약한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전국 비록대회와 동산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AIC동창회

李敬俊 회장 선출

정보통신방송정책과동창회(회장 金日洙)는 지난 3월 7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AIC대상 시상식을 개

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金日洙회장을 비롯해 행정대학원 崔濟善원장, 李碩漢교수 등 1백3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에이스 안테나 李敬俊(8기)대표를 새 회장으로 추대했다. (관련 인터뷰 8면)

AIC대상은 지난해 7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에 취임한 李敬鎭(6기)동문이 수상했다.

간호대학동창회

李倫京 회장 선임



간호대학동창회(회장 俞淑子)는 지난 3월 21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총무부원 李倫京(65-69)부원장(사진)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李倫京회장은 "丁亥년에 돼 지미 회장이 나왔으니 부자 동창회가 될 것"이라며 "팀차게, 다들께 협력하는 동창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李회장은 오랫동안 동창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3천만원의 장학금을 출연하기도 했다.

감사에 金彩淑(66番)·申美江子(64-68)동문을 선임했으며, 상임이사로 모교 간호대학 金麗宰(77-81)교수가 수고장으로 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모교 金濟福부총장, 간호대학 尹慶熙학장, 차원평명예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간호교역 1백주년' 기념 전포식을 거행했다.

가운데 '서울대 간호교역 1백주년' 기념 전포식을 거행했다.

HPM동창회

姜善英 회장 추대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동창회(회장 白純之)는 지난 3월 5일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안동병원 姜善英(1기)이사장(사진)을 새 회장으로 추대했다.

감사에 한림 柳勝權(4기)대표와 연세의대원 최대종(13기)원무부장, 사무총장에 명진원 權孝辰(8기)대표를 선임했다.

불문학과동창회

'불문인의 밤' 열어

불문학과동창회(회장 洪志一)는 지난 3월 22일 서울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77·87·97학번 동기회 주관으로 '2007 불문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지랑스라운 불문인'으로 선정된 鄭明煥 前교수·교수를 비롯해 洪志一·洪志一, 元潤 洪明煥·洪志一, 한국불어불문학회 朴英惠·洪志一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은 주한프랑스 문화원 장 박 밀랑(Jean-Luc Maslin)원장의 초청 강연을 듣고 기별 단합 정기차량, 경품추첨 등을 즐기며 선무배간 우의를 다졌다.



음악대학동창회

정총서 장학금 전달

음악대학동창회(회장 徐桂敏)는 지난 3월 2일 서울 중구 뉴서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金貞玉·金連聲·李誠敬 등 7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행사를 가득 메웠다.

이날 행사는 2006년 사업보고, 감사 및 회계보고, 2007년 사업계획보고, 발전기금 전달식, 장학증서, 만찬 및 경품추첨 순으로 치러졌다.

金泳律동문은 감사보고에서 "지

난 1년간 동창회 기금이 9백여 만원에서 8천4백여 만원으로 증가했다"며 徐桂敏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이날 동창회는 국악과, 성악과, 가악과, 작곡과 재학생 5명에게 각각 1백만원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어 올해 졸업 40주년을 맞이한 17회 동기회(회장 高麗媛)에서 동창회 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을 徐桂敏회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SBS 예술단 金正澤(가악69-74)단장의 감이로운 피아노 연주와 꾸밈한 경품 등을 받으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동창회는 12월에 '총동창회 장학발급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디너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南)



2006년도

동 창 회 결 산 공 고

대 차 대 조 표

2006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산	(3,153,033,612)	부채	(134,755,802)	
1.유동자산	(3,146,187,540)	1.유동부채	(50,114,461)	
(1) 당좌자산	3,146,187,540	1) 예수금	16,773,576	
1) 현금과 배급	3,048,534,950	2) 미지급금	33,340,885	
2) 미수금	23,000,000	3) 회상대입금	0	
3) 미수수익	55,435,978	4) 선수수익	0	
4) 만불 여금	0	2.고정부채	(84,641,341)	
5) 유가증권	0	1) 수입보증금	0	
6) 제세입납금	19,216,712	2) 피직급여충당금	84,641,341	
		자본	(3,018,277,810)	
2. 고정자산	(6,846,972)	1.자본금	(4,161,271)	
1) 시급보증금	255,750	1) 기본금	4,161,271	
2) 전신전화가입금	0	2) 이익잉여금	(3,014,116,539)	
3) 비용	77,676,691	6,590,222	1) 차기해당 이익잉여금	3,014,116,539
감가상각차감금	71,086,469		2) 이익잉여금	1,316,208,720
합 계	3,153,033,612	합 계	3,153,033,612	

손 의 계 산 서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1. 매출액	1443,482,033	15) 부가가치세	0
1) 광고료	443,482,033	16) 수익사업 비용	0
2) 매출원가	(881,969,678)	17) 지급수수료	4,162,490
1) 간행물비	881,969,678	5.사업손실	(1,900,646,680)
3) 매출충손실	436,487,645	6.영업외 수익	(2,086,891,606)
4) 사업비	(1,482,156,035)	1) 회회회비	1,328,938,530
1) 인건비	171,892,635	2) 수입이자	145,742,645
2) 회회비	123,808,273	3) 환조금	607,819,741
3) 어비 교육비	12,438,500	4) 갈수익	4,300,892
4) 원상회비충	24,291,600	7.영업외 비용	(1,502,511,848)
5) 사무비	41,057,854	1) 교육사업 후원금	0
6) 예금과 공과	18,453,560	2) 장손실	40,070
7) 보험료	375,150	3) 외환차손	1,291,065
8) 회계처리당금 발생	0	4) 유가증권 평가손	0
9) 감가상각차감금	5,921,141	5) 예적립기금충원	1,501,180,113
10) 원상회비	219,704,228	8.특별손실	0
11) 자원사업비	84,718,128	1) 고정자산처분손실	0
12) 조직강화비	755,542,496	9.법인세차감전이익	(1,316,208,720)
13) 피직급	0	10.법인세 등	0
14) 알비	1,492,980	11) 당기순손실	(1,316,208,720)

위와 같이 부고함

2007. 3.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光洙



뉴욕 동창 협회의 사진 Plushing NY, 2007. 3. 22.

뉴욕지부동창회

12월 첫 장학금 수여

뉴욕지부동창회(회장 閔熙禮)는 지난 3월 22일 뉴욕시내 대동연회장에서 李鎭行(심유공학48-54)이사장, 金知憲(작곡82졸)사무총장, 재미동창회 李典九(임학60-64)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장학기금 위원회(위원장 金鎭勳)를 발족함에 따라 오는 12월 미국 동부지역

에서 유학 중인 서울대 출신 대학원생 4명에게 각각 2천5백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참석자들은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16차 재미평의원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뉴욕지부 동문들의 참여와 협조를 적극 요청하기도 했다.

전진지부동창회

韓相燮 회장 취임

전진지부동창회(회장 韓相燮)

는 지난 3월 2일 중국 천진시내 일식집에서 정기총회 겸 상간례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韓相燮회장과 孔鍾敏총무 등 현 회장단이 1년간 유임됐으며, 4월 중 천진지역에서 근무하다 귀국한 동문들을 초청해 부부방문으로 끝내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전진지부동창회는 분기별로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崔基滿(미학55-60)·申慶鎭(광산64-68)·韓相燮(식문68-72)·李鍾基(경 영 69-73)·차佑(경 제 75-

79)·田光烈(조선공학76-80)·崔泰衡(축산76-80)·孔鍾敏(불문81-85)·朴權熙(지리83-87)·玄昌晔(농화학84-88)·홍중산(대학원98-01)등분 등이 주축이 되어 전록을 나누고 있다.

치과대학동창회

모교·병원과 학술대회

치과대학동창회(회장 洪禮約)는 지난 3월 18일 모교 연전캠퍼스 치과병원에서 치과대학·치과병원과 함께 '2007 학술대회 및 토크쇼'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각 기수별 동지회 뿐 아니라 의과·동아리·함우 등 다양한 동문회가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 1천명이 넘는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는 학술강연은 물론 동문들의 일제강과 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언대원동창회

姜南俊 교수 특강

언론정보학과 대학원동창회(회장 金武煥)는 지난 3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6층에서 모교

언론정보학과 姜南俊(교육70-78)교수를 초청, '신분지변의 주목점'을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한편 이날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김대길(석사과점)문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동승클럽

宋常熙회장 뽑아



죽별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세배를 宋常熙(지질65임)대표(사진)를 선출했다.

신임宋회장은 지난 몇 년간 포럼 장소를 제공한 등 모임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감사는 吳相兌(동물65-69)前부신지부동창회 신약회장, 총무는 윤정재전 金容泰(철학65-74)사무총장이 맡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의교동 상부 姜振輝(의교65-72)본부대사가 '북한 핵협상'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쳐 동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IP동창회

청계산 오르며 '야호'

IT벤처산업과장동창회(회장 金明道)는 지난 3월 17일 서울 청계산에서 등산대회를 열고 회원간 친목을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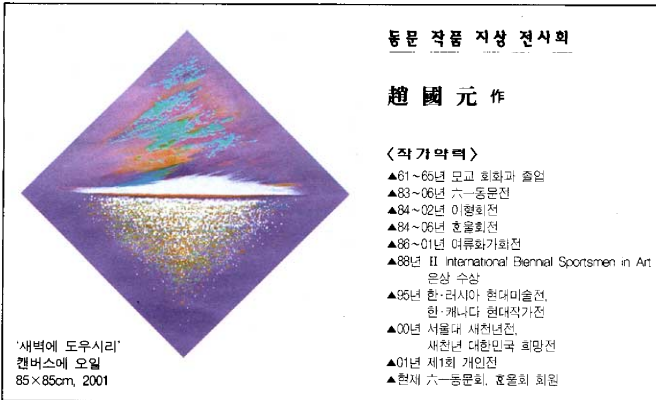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金明道회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동문들이 참여해 金鎭植(3기)등산회장의 안내에 따라 원터널 입구-육녀봉-대봉 코스를 등반했다. (南)

동문 작품 지상 전시회

趙國元作

〈작가약력〉

- ▲61~65년 모교 회화와 출판
- ▲83~06년 六一동문진
- ▲84~02년 이항회전
- ▲84~06년 홍물회전
- ▲86~01년 여류화가회전
- ▲88년 II International Biennial Sportsmen in Art 수상
- ▲95년 한·러시아 현대미술전, 한·캐나다 현대작가전
- ▲00년 서울대 서천년전
- ▲01년 새천년 대한민국 회화전
- ▲01년 제1회 개인전
- ▲현재 六一동문회, 홍물회 회원



'새벽에 도우시리'
캔버스에 오일
85×85cm, 2001

2006년도

(재) 관악회 결산공고

대차대조표

2006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산	(18,687,532,097)	부채	(479,772,182)
I. 유동자산	(18,569,541,748)		
(1) 당좌자산	18,064,505,131	I. 유동부채	(16,750,080)
(1) 현금및현금성자산	15,739,075,282	1) 차입금	4,183,180
2) 매출채권	0	2) 유동차입금	3,286,900
3) 매출채권	0	3) 유동차입금	0
4) 미수금	288,419,179	4) 유동차입금	0
5) 단기금융자산	33,422,440	5) 단기금융자산	0
6) 선급금	33,888,230	6) 선급금	0
(2) 재고자산	505,036,617	II. 장기부채	(483,022,082)
(2) 재고자산 (전설자산)	505,036,617	1) 장기부채	0
II. 고정자산	(2,117,990,349)	2) 장기부채	0
(1) 투자자산	911,862,672	3) 고정자산차입금	0
1) 투자자산	910,000,000		
2) 장기금융자산	1,922,672		
(2) 장기금융자산	1,922,672		
3) 장기금융자산	628,230,410		
3) 장기금융자산	628,230,410		
4) 장기금융자산	1,077,268,081		
4) 장기금융자산	1,077,268,081		
5) 장기금융자산	510,635,024		
5) 장기금융자산	510,635,024		
6) 장기금융자산	413,138,913		
6) 장기금융자산	413,138,913		
7) 장기금융자산	412,617,983		
7) 장기금융자산	412,617,983		
8) 장기금융자산	38,915,770		
8) 장기금융자산	38,915,770		
9) 장기금융자산	30,388,832		
9) 장기금융자산	30,388,832		
10) 장기금융자산	81,718,008		
10) 장기금융자산	81,718,008		
11) 장기금융자산	79,663,630		
11) 장기금융자산	79,663,630		
12) 장기금융자산	0		
12) 장기금융자산	0		
합계	18,687,532,097	합계	18,687,532,097

위와 같이 공고함
2007. 3.

(재)관악회 이사장 林光洙

손익계산서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I. 매출액	(211,123,966)	17. 잡비	4,186,810
1. 판매수익	119,373,996	18. 청초비	658,000
2. 용역수익	91,750,000	19. 후원사업비	0
II. 매출원가	0	V. 사업손실	(214,338,406)
III. 매출총이익	(211,123,966)	VI. 영업외 수익	(2,448,914,048)
IV. 사업비	(435,460,372)	1) 이자수익	568,042,433
1. 직원급여	106,894,788	2. 유가증권 처분이익	45,516
2. 장여금	37,706,110	3. 유가증권 처분이익	815,309,609
3. 상환	1,230,000	4. 환손금수입	1,057,927,990
4. 회리금	7,745,567	5. 잡이익	7,588,419
5. 복리후생비	7,882,000	VI. 영업외 비용	(990,091,112)
6. 여비교통비	6,507,000	1) 이자비용	583,710
7. 임대비	151,800	2. 유가증권처분손실	975,687,278
8. 통신비	5,380,707	3. 유가증권처분손실	100,000
9. 수도광열비	52,153,889	4. 유가증권평가손실	7,830,000
10. 세금과 공과금	108,359,715	5. 잡손실	5,880,124
11. 감가상각비	26,359,214	VI. 영업외 이익	(1,244,496,530)
12. 수선비	15,195,000	IX. 특별이익	0
13. 보험료	3,561,030	X. 특별손실	0
14. 차당유지비	4,777,910	XI. 법인세차감전이익	(1,244,496,530)
15. 소모품비	20,572,900	IX. 법인세 차감	0
16. 자금수수료	15,835,940	XII. 당기순이익	(1,244,496,530)

대전·충남지부동창회

법조계 동문 환영회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3월 8일 대전시내 이가령 일식집에서 새로 부임한 법조계 동문 환영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吳회장은 환영사에서 "대전지역의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법조계 출신 동문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으며, 吳世彬(법학68-72)대 전고법임장이 "서울대인의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참석한 법조계 동문은 다음과 같다.

▲대전고법: 吳世彬법원장, 權純一(법학77-81)수석부장판사, 姜文求(법학77-81), 李孝淵(법학79-83), 趙京蘭(법학79-83), 金



尙達(법학80-84)부장판사 ▲특허법원: 朴國珠(법학67-71)법원장, 李起老(법학78-82)수석부장판사, 成眞文(법학71-78), 李太鍾(법학78-82), 元裕鍾(법학80-84)부장판사 ▲대전지법: 金銀鑑(행정68-72)법원장, 許容碩(사법83-87)가정지원장, 李元一(법학76-80)수석부장판사, 李孝勳(법학80-84), 安承淮(사법82-86), 崔炳俊(사회82-86), 林福圭(사법83-87), 朴寬根(사법85-89), 姜仁誌(경제86-90), 陳昌秀(사법86-90)부장판사

한련 동창회 관악기우회(회장 吳壽丁)는 지난 2월 24일 대전시내 한국기원에서 전록 바둑대회를 열었다.

단체전에서 의대·사회계열·자연계열 동문팀과 한남대 교수팀이 출전해 사회계열 文正才(법학60-64)·高麗都(경영78-83)·崔承鎔(경영85-89)동문팀이 우승했으며, 개인전에서 安正雄(화학82-87)등이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吳應準동창회장이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패를 수여했다.



전북지부동창회

모교 신입생 환영 모임

전북지부동창회(회장 金聖吉)는 지난 2월 27일 전주시에 중식당 백리향에서 모교 신입생 초청 환영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92명의 신입생 중 63명이 학부모와 함께 참석했으며, 金聖吉(법학60-64)회장, 洪性大(수학57-63 본회 부회장 겸 관악회 상임이사), 姜寶旭(외교57-61)고문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다.

金聖吉회장의 환영인사에 이어 洪性大교문이 신입생들에게 "명석 한 두뇌와 따뜻한 가슴을 모두 겸비한 서울대인이 되기를 바라며, 꿈이 있는 사람만이 열심히 노력해서 끝내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환영회에서 선배 동문들이 열자리에 앉은 신입생들에게 기념 배지를 달아줬으며, 서울대 로고 새겨진 시계와 전라북도 소개 책자를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또 신입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성악가 禹仁澤(성악78-82)등문과 金潤美(기악80-84 피아노)·박화선(국악06졸·가야금)등문의 멋진 공연이 이어졌다.

동창회는 올해 상반기에 서울대 가족 등반대회, 하반기에 지역 봉사활동 행사와 문화탐방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表)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치과대학동창회 洪禮杓회장

(후에프치과의원 원장)

치과대학동창회는 지난 2월 제14대 회장으로 후에프치과의원 洪禮杓(치위협65-71)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임 洪회장은 "모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며 "동문과 학교, 병원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지난 3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왔다.

- 소망 한 말씀.

"동창회 일은 남의 일이 아닌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졸업했으면 봉사할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렇지만 지방에 있거나 다른 일로 바빠만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여건이 되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동창회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회원은 5천5백여 명입니다. 하지만 연락 가능한 분은 3천8백여 명 정도 되고 이 가운데 1천2백여 명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4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 모교 지원금, 친목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2천만원을 늘려 좀 더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 기금이 2억원 정도에 불과해 기금 확대에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동문들이 내주시는 돈이 병원 후원금, 대학 발전기금, 동창회 회비 이렇게 세 종류인데, 이것들을 통합해 회비 등을 총괄하게 생각합니다. 동창회에 내는 돈뿐 아니라 병원, 대학에 내주는 돈도 동일하게 소중하게 때문입니다. 또 졸업 60주년을 맞는 선배와 은사 초청 행사를 꼭 가지



려고 합니다."

- 치과대학이 치위협대학으로 바뀌었는데요.

"동창회 명칭을 비롯해 회원과 관련된 정편을 많이 수정해야 합니다. 회의를 거쳐 치위협대학원 첫 졸업생이 나오는 2009년부터는 '치과대학·치위협대학원동창회'로 표기할 생각입니다."

- 동문과 모교에 바라는 점은.

"서울대가 국립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AIC동창회 李敬俊회장

(에이스안테나 대표)

- 상무회는 직원도 필요할텐데.

"물론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직원 한 명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은 당분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문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법인화가 비공인 많이 들어나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충분한 회의를 거쳐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생각입니다."

- 법인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은.

"지난해 말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도 일종의 친목단체인데 정부의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인 단체다 보니 조직적으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홈페이지를 통해 스타디움도 생겨나고 자연스레 정부에 대한 정책건의도 이뤄지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AIC)동창회는 최근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에이스안테나 李敬俊(8기)대표를 선출했다. 신임 李회장은 취임사에서 "동창회를 법인화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펼쳐나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3월 13일 일식당 에이스안테나 서울지점에서 만나 법인과 계획 등에 대해 들어왔다.

- 회장직을 어렵게 맡으셨는데.

"동창회장이 되려면 수석부회장을 거쳐

"졸업 60주년 맞아 선배 초청모임 계획"

"회원은 5천5백여 명입니다. 하지만 연락 가능한 분은 3천8백여 명 정도 되고 이 가운데 1천2백여 명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4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 모교 지원금, 친목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2천만원을 늘려 좀 더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 기금이 2억원 정도에 불과해 기금 확대에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동문들이 내주시는 돈이 병원 후원금, 대학 발전기금, 동창회 회비 이렇게 세 종류인데, 이것들을 통합해 회비 등을 총괄하게 생각합니다. 동창회에 내는 돈뿐 아니라 병원, 대학에 내주는 돈도 동일하게 소중하게 때문입니다. 또 졸업 60주년을 맞는 선배와 은사 초청 행사를 꼭 가지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동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국가의 지원만으로는 힘든 점이 많아요. 동문들께서 '우리 대학'이란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길 바랍니다. 모교도 동문들에게 휴게실이냐 주차장시설 등에 대한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요. 또 치위협 관련 부문 전년도 열린 동문들의 참여를 더 많이 이끌어 내 것이라고 봅니다."

신임 洪회장은 오랫동안 동창회 부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해 왔다. 현재 대한치협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스마일재단 이사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치위협은 내가 아닌 남을 돕는 학문"이란 생각으로 병원을 그만두면 봉사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가족으로 부인과 1남 2녀가 있다.

"동창회를 연구단체로 법인화 추진"

어느 정도 활동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회장을 맡기가 어렵겠다 싶어 몇 번 고사를 쳤죠. 부족한 재원을 밑고 맡겨주신 만큼 시간만 채우고 떠나는 회장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법인화에 대한 계획은.

"내년이면 회원이 1천명을 넘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방송분야를 선도하는 주요 법인체죠. 이런 단계가 단순 친목모임으로 유지되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아요. 동창회를 정보통신·방송 연구단체로 법인화하면 여러 가지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책이나, 인력 양성에 대해 어드바이스해주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죠. 법인화를 하면 회비 모금에도 도움이 되고요."

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계획은.

"각 기법 회장이 정해지면 4월 중 이사 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회원 명부를 재정리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 동문들에게 편지로 새 회장단의 출범을 알리고 동문들이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합니다."

전북 김제 출신인 李회장은 한국방송통신대, 연세대 산업정보통신을 졸업했다. 체신부(현 정보통신부) 입사 후 KT 가통신부장·기획조정실장을 거쳐 KTF 사장, KT네트웍스 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표로 맡고 있는 에이스안테나는 무선통신 안테나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6백여 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백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취미로 등산을 즐기며 가족으로 부인과 남매가 있다. (南)

‘젊은 과학자’ 연속 배출 ... 藥大 연구원들 자신감 고취

등부의 창아서

모교 약학과 徐榮俊교수

지난 3월 22일 8년 연속 미국암학회(AACR)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를 배출한 모교 약학과 徐榮俊(제약77-81)교수를 관악캠퍼스 연구실에서 만나 수상비결, 연구원들과의 이야기 등을 들어봤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둘러본 그의 연구실 책상 위에는 스승인 교 James A. Miller 교수와 부인인 Elizabeth C. Miller 교수 부부의 사진이 놓여있었다. 공이여 형이 가운을 입은 뜻밖의 여학생 네다섯 명이 저마다 과일과 음식을 한가득 안고 총총히 들어와 '작은 대회'를 준비했었다. 깎듯이 일벌을 맞이해준 준교수,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교수 부부의 다정한 사진, 그리고 미소가 가득한 연구원들의 모습이 멋진 조화를 이루는, 기쁜 줄은 하루였다.



대답 : 본보 許英燮 논설위원 (경향신문 논설위원)

— 8년 연속 미국암학회(AACR)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 배출을 축하드립니다. 신문·방송을 보고 연락 오는 친구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8년 연속 수상하다 보니 주변에서 먼저 '이번에는 상을 안 받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지도교수이긴 하지만, 좋은 논문을 쓴 학생들과 연구원들이 수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젊은 과학도들에게 reward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연구실의 풀 네임은 어떻게 되는지,

“발암기전 및 분자 암예방 국가지정연구실(Laboratory of Molecular Carcinogenesis and Chemoprevention)입니다. 3년 전 과학기술부 국가지정연구실로 선정되면서 연구원들과 함께 실험실 이름을 지었습니다.”

- 연구원이 총 몇 명입니까. 또 이번에 수상한 연구원들은 어떤 분이죠.

“태극 비문유학생 두 명을 합치면 총 24명이지만, 실제 함께 연구하고 있는 사람은 22명입니다. 5년 연속 수상한 羅憲卿연구교수, 李正常(자경) 등 6명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연구원이 7명, 석사과정 연구원이 9명입니다. 올해에는 羅憲卿연구교수, 李正常·金하나·李美蘭연구원과 작년에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노비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李政哲(정몽)이 수석연구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연구원을 선발할 때 정원이 있을텐데,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서울대가 대학원 중심으로 바뀌면서 입학정원이 줄어들어 우수한 학생들을 다 수용하지 못해 아쉽죠. 제한을 두다 보니 안타깝게 다른 대학에 지원한 학생이 있는 반면 합격할 때까지 도전하겠다는 두 차례나 시험을 보셔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 약대에는 연구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연구단위로 묶어서 13개가 있으며, 현재 45명 정도의 약대 교수들이 기본적으로 연구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 8년 연속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요.

“성격상 일일이 간섭하고, 강요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연구분위기를 중시합니다. 스스로 자기 분야에 몰두하여 흥미를 가지는

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감각을 익히고, 국제학술지나 국제학회에서 대부분 영어로 소개하기 때문에 석사논문도 영어로 제출하고 주문합니다.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writing/기술에서부터 최종 원고까지 꼼꼼히 봐주려고 노력하고요. 어떤 논문은 열 번 정도 서로 주고받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경우도 있고, 외국출장 시에는 호텔이나 공항이든 집에 학생들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나중에 메도해줬다가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당부하죠.

- 영어로 논문을 쓰는
훈련도 받는거군요.

“국제학술지에 기고하
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
시피 영어로 잘 쓰는 게
중요하고, 학회에서는
오널프리즈제이션이 중

요합니다. 교수님들이 대신 발표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직접하려고 합니다. 부담되고 긴장되겠지만, 한번 발표하고 나면 그만큼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왕이면 발음도 좋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원어민 강사에게 특별레슨을 받기도 하고요."

— 학생 강의를 듣고 계신지.
“학부 및 대학원 필수과목인 생화학, 대
학원 필수과목인 의약분자생물학, 그리고
학부 선택과목으로는 종양학과 생명약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암관련 강의인 종양학

은 관악캠퍼스에서 저희가 처음 개설한 과목이구요.”

— 대학원에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강조하시는 게 있다면,

“학부 시절에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다. 하지만, 이 연구실에 들어온 이상 너희들은 ‘연구를 수행하는 수도승’이라는 마음가

집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당부하죠. 실험실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거기에 심취해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일요일에도 저절로 발걸음이 연구실로 향하게 돼 있거든요.”

- 논문을 잘 쓰는 방법이라고나 할까요.
교수님의 노하우가 있다면.

“먼저 제가 좋은 논문을 발표하고, 역량 있는 연구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큰 영향을 주신 은사분들 미국 위스콘신대의 James A. Miller 교수와 부인인 Elizabeth C. Miller 교수와 있습니다. 모두 종합양화학에 전공했었고, ‘발광 물질이 체내에 들어와 대사를 활성화하여 DNA를 공격하고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을 개시한다’는 이론을 처음 제시한, 화학적 발광(Chemical Chemosensitization) 분야 연구의 선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분들 밑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글 쓰기에 대한 기술을 나름대로 터득했던 것 같아요. 과학논문을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기술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투명한 패턴이 있습니니다. 그래서 우수한 논문을 읽으면서 좋은 문단이 있으면 수첩에 메모해두다가 논문을 쓸 때마다 틈틈이 활용한 것이 더 도움이 됐죠. 또 교수님들에서 꼼꼼하게 읽고자 사상관계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엔 재나 똑똑할 해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것 못 하더라도 재자들에게 더 깊은 전수하려고 노력하셨.

- 연구원들과의 좋은 팀워크를 위해 친목모임을 가지시는지.

"1년에 한번 2박3일 일정으로 하계휴가를 떠나는데, 점점 식구가 늘다보니 버스 한 대를 대절해서 가고 있습니다. 좀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해온 연구에 대한 디스커션도 하고, 한비탕 비닷가에서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인공물을 하도보면 그동안 서로 불쾌했던 감정도 어느새 사라지고 더욱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 암관련 연구는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셨나요.

“국내에서 이 분야에 발을 내딛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은사로는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이진기 소장 **李鎭基**(1943~54) 명예교수가 계십니다. 그 분 밑에서 한국인이 많이 습득하는 생각, 구조 등에 들어 있는 상반된 물 음 안에 들어와 어떻게 대사회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 때문에 화학물질의 대사 과정을 공부할 때는 대안으로 가지도 했죠. 그러던 중 Miller 교수부부의 연구보고가 화학물질 대사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고 이걸 한번 재검토하러 싶어 정년을 앞둔 Miller 교수부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اون이 좋게 제가 마스터 제도로 가게 됐습니다.”

— 한번만에 Miller교수부부의 동의를 받으신거네요.

“당시 위스콘신대 안내 책자에 교수 명단을 보니까 제임스 밀러와 엘리자베스 밀러가 있는데, 연구분야가 똑같은 거예요. 두 분이 성이 같아 부부일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그래서 제임스

“암예방 연구가 임상적용이 되도록 징검다리 역할”

✍ 밀러 교수에게 먼저 편지를 썼는데,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분야를 공부하고 싶으니 제자로 삼아주시고요. 자리가 없으면 이 편지를 엘리자베스 밀러 교수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일부터 그런 건 아니었는데, 결국 이 부부에게 더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됐죠. 오로지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엮였으니까요.”

— 일을 일으키는 인자를 모두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발암관련 인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체암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인자로는 흡연과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걸리는 암의 대부분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3분의 1은 흡연, 3분의 1은 음식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음식은 암을 일으키는 요인과 거꾸로 이를 막아주는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 교수님께서서는 담배는 안 피시죠.

“대학 다닐 때 조금 피우다가 미국 유학 가서 끊었습니다. 귀국한 뒤로는 가끔 친구들과의 저녁식사자리에서 한 대 권하면 마지못해 피우는 정도입니다.”

— 성급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암이 언제쯤 정복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암은 쉽게 정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하나라면 몰라도, 암유전자가 처음 발견된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밝혀진 종류만 수십 종에 이르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도 발견되고 있고요. 암은 종류가 다양할뿐더러 각 암마다 일어나는 원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우리 한국음식에 들어가는 양념이랑까요. 발암억제소들이 있는 것으로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우리 전통음식에 들어가는 생강, 마늘 등은 미국에서도 암예방 효과가 탁월하다는 연구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음식만 조금 조절한다면 한국인의 건강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포도껍질에도 발암억제소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포도껍질과 적포도주에 함유돼 있습니다. 항산화, 암예방 및 노화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 연구과정이 쉽지만은 않음에도, 애로점은 없으세요.

“자연과학에서의 연구는 하나의 가설을 세워서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설대로 맞는 경우가 있고 전혀 반대로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결과가 나왔을 경우,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처음부터 다시 연구하고 유추하다보면 오히려 더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구하면서 힘든 점은 없습니다.”

— 앞으로의 연구계획은.

“저의 연구실에서는 실험적인 연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저의 같은 기초연구를 하는 학자들과 임상사의 및 기타 역학연구를 하



일요일에도 출근하는 수도승 생활 ‘행복’

암으로 돌아가신 모친, 생전에 한번 안아봤으면...

는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다학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가 징검다리가 되어 실제로 임상적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생각입니다.”

—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얼마 전 신문을 보니 포스텍을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이 서울대 의대에 다시 들어간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수한 공대, 자연대 학생들이 다른 분야로 전공을 바꾸는 이유는 아마도 현 분야에서 재미를 못 붙이고, 졸업 후 충분한 보상이나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자금을 가지고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

수,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학원생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갖는 학생이 있는데, 확고한 목표 없이는 다른 분야로 옮기더라도 거기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든 지 한 우물을 파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꿈은 무엇이었습니다.

“부친께서 무역업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영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죠.”

— 그뻘 약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고3때는 생물과 화학을 좋아해서 약대에 들어가서 약이 인체에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며, 어떤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키는지 배우고 싶어서 주저 없이 서울대 제약학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 원래 서울 출신이시죠.

“네요. 인천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경상도 분들이십니다.”

— 고등학교는 어디를 나오셨죠.

“저희가 평촌화 첫 세대라 미아리에 있는 영훈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 그뻘 어디서 사셨나요.

“성북동에서 오 살았고, 서울대 교수로 임용되면서 학교 근처로 이사 왔습니다.”

— 약대 화학실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 주시죠.

“학부시절에는 여는 대학생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어 자유분방하게 지냈죠. 대학원에 들어온 뒤로는 정말 수도승 생활을 했어요. 실험실에서 밤도 많이 세고, 그뻘 정전이 왜 그렇게 많이 왔는지, 열심히 만든 시약들이 정전으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옆에 누워서 밤새기 일쑤였고, 어쩌다 잠깐 잠이 들면 하룻 그뻘 정전이 돼서 약물을 다 버려야 했던 적도 있었죠. 가끔 실험실 학생들과 술 한 잔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렇다고 빚은 시간에 밖에서 나갈 수도 없어 위원을 무릎쓰고 예탄을로 카테일을 만들어 몰래 마셨던 기억이 나네요. (웃음)”

—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집사람과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 연구만 하셔서 따로 여가시간이 없으시겠습니까.

“취미생활이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96년에 귀국해 딱 1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거의 매주 일요일은 연구실에서 일한 것 같습니다. 토요일도 당연히 나왔고요. 대학원에 다닐 때부터 습관이 되어서 조용한 연구실에 있다보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유일한 취미라고 한다면 국제학회 참석차 해외로 출장을 가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만남도 갖고, 강연 등 공식적인 일장 외에 틈틈이 그곳 명소를 둘러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편입니다.”

— 살아오시면서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였나요.

“그동안 해온 일들은 제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머니께서 암으로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투병하시던 1년의 기간이 여러 가지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과학기술부 국가정책연구실 사업에 저희 연구실이 지원한 상태였고 해외출장도 잦았던 시기였어요.”

어머니께서 어릴 적부터 저에게 기대도 많이 하시고, 엄하면서도 자상한 분이셨어요. 그때 돌아가신 것을 지금 되돌아보면 저에게 부담을 덜 주시려고 일찍 손을 털고 떠나신 것 같아 그동안 너무 못내던 게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특히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출장을 앞두고 문 앞에서 함양치료를 수칙해지신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정말 한번 교육 안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표현을 워낙 못하는 탓에 그냥 떠난 것이 지금까지 한이 됐죠.”

—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다’ 이런 좌우명이 있죠.

“어머니께서는 늘 남에게 베풀고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제 생각과는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매사에 좀 더 신중하고자 노력합니다.”

— 앞으로 더욱 좋은 연구성과를 거두시길 바라며, 바쁘신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徐榮後 교수 약력

△57년 인천 출생 △81년 서울대 제약학과 졸업 △83년 동대학원 약학 석사학위(생화학전공) △85년 도미 △90년 미국 위스콘신대(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이학 박사학위 △90~92년 미국 MIT대 연구원 △92~95년 미국 Yale대 의과대학 조교수 △96년~서울대 약대 교수 △현 한국과학기술훈림원 정회원, 대한암학회 이사, Carcinogenesis(Oxford University Press) 등 관련 10여 개 국제학회지 편집위원, 국내과학자 최초로 ‘네이처 리뷰(Nature Review)’에 총설 논문 게재

(사진=본보 李五峰는실위원·정리=表智媛기자)

“말년에 대규모 온천사업을 시작한다니까 노망들었다고 편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편히 쉬어가며 여유자적하게 인생을 즐길 나이인데 뭐하러 사서 고생하냐는 것이죠. ‘일벌’로 태어난 운명이겠거니 하며 웃어 넘깁니다.”

문화사상사 任洪彬(법학52-56)회장은 현재 직함만 3개가 넘는다. 테르메덴 온천리조트 대표, 서울언론클럽 회장, 번역가, 서립 대표 등. 77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자는 시간도 5시간 내외, 그래도 얼굴빛은 청년 못지 않게 건강하다.

“어린 시절 별명이 ‘황새새끼’였을 정도로 바짝 마른 몸매의 허약체질이었죠. 부

13만평의 일야를 샀습니다. 70년대 초 그곳 땅값이 1백50원~2백원정도에 불과했으니까요.”

任동문이 구입한 임야는 조선시대부터 유명한 온천이 있던 곳에서 불과 7~8km 떨어진 곳이었다. OB맥주, 진로 등의 공장도 멀지 않았다. 좋은 물에 대한 확신이

장한 숲 속에 수영을 할 수 있는 온천품과 각종 스포츠 시설을 갖춘 온천리조트를 말한다.任동문이 구입한 이전 땅은 독일식 온천장을 구현하기에 최적이었다.

지난해 1월 문을 연 테르메덴은 여러 언론매체와 다녔을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천리조트로 자리

번역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온천사업을 펼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도 틈틈이 번역을 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상실의 시대’.

“자난해 하루키 쪽에서 ‘상실의 시대’를 다시 번역해 출간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왔어요. 흔쾌히 받아들였죠. 지금 번역은 끝나고 교정을 보고 있는데, 원제인 ‘노르웨이 숲’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했고 책표지도 원자와 동일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기존 작품과는 또 다른 맛이 느껴질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소설뿐 아니라 영어권 책도 여러번 번역했다. ‘별가뱃은 대통령 각하’, ‘대통령의 연방과 집무실’ 그리고 첫 번역 작품인 ‘사립가는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등.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게 습관이 돼 있었기에 언론인, 사업가, 번역가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다. 기사시절엔 이런 열성으로 3~4단계를 뛰어넘어 4년 만에 논설위원 직함을 달기도 했다. 지금도 바쁜 시간을 쪼개 고려대 문화예술최고위과정 수업을 듣고 있다.

“얼마 전에 최고위과정에서 MT를 다녀왔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극기훈련도 받고 마작리 신고식도 치렀습니다. 응원기도 합치게 부르면서요. 다들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나이는 세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숫자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제 사전에 은퇴는 없습니다. 일하다 죽는 날이 제 은퇴식이 될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나이가 가리’는任동문으로부터 나온 건배사가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南)

화제의 동문

문화사상사 任洪彬회장

모님이 체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온천에 자주 다녀갔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튼튼해지고 남한테 빠지지 않는 체력을 갖게 됐죠. 제 얼굴보다 70대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시요. 온천을 즐기는 덕분입니다. 그래서 느긋한 나이에 온천사업도 생각하게 됐고요.”

문화·예술 테마공원 만들고파

온천 사업은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온천수가 흐르는 땅이 있어야 하고 더욱이 대규모 온천리조트면 자금이 충분해야 한다. 평생 언론인으로, 출판사 대표로 살아온任동문이 어디서 이런 땅과 자금을 구할 수가 있었을까?

“40대 중반 언론사를 나왔을 때 약간의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쳐 1천5백만원 정도 있었어요. 당시 강남에 개발비가 한 장일 때인데, 강남과 이전 땅을 두고 고민했지요. 어릴 적 전원생활에 대한 꿈, 온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작용해 이전에

들었고 90년대 들어 온천 탐사에 착수했다. 예상했던 대로 온천은 어렵지 않게 발견되었다.

“온천이 발견됐다고 하니 친구들이 욕심부리지 말라고 조언하더군요. 천천히 계획을 세웠지요. 문화와 예술, 레포츠가 결합된 공간을 만들어 보자 마음먹고 10여 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은행 융자를 받아 지난해 1월 경기도 이천에 테르메덴 온천리조트를 건립했습니다.”

테르메덴은 독일어 Therme(온천)와 영어 Eden(낙원)의 합성어이다.任동문이 독일의 온천지를 여행하며 영감을 얻어 지었다. 이름답게 온천도 독일식을 지향한다. 독일식 온천은 평균 9만평 이상의 물

잡았다. 비수기인 요즘도 주말엔 2~3천 명이 다녀간다. 지름이 30m가 넘는 실내 비데풀과 닥터리쉬(천천히) 전용탕은 테르메덴만의 자랑이다. 지난해 12월에 한 국립관광공사에서 중부수도권 최고의 온천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전문 번역

문화사상사 편집고문이기도 한任동문은 우리나라에 ‘무라카미 하루키’를 널리 알린 장본인이다. 하루키 소설 30여 작품을 기획하고 번역·감수 등을 맡았다. 최근에는 ‘어둠의 저편’, ‘도쿄기담집’, ‘력실태의 유령’,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 등을



공트 릴레이

봄비

金永顯

(칠화74-82)

소설가



지난 봄 디어 장풍을 바쳤다.
올해로 치자면 우리가 결혼한지 꼭 19년째 되는 해니까 장풍 역시 우리와 함께한지 19년이 되는 셈이다. 그동안 수 차례 이사를 다니느라 여기저기 더러 상처를 입긴 했지만 아직 쓸만한 터여서 웬만하면 그냥 쓰리라 했는데, 마침 집 보수공사를 하는 손아래 처제가 자기에 가구를 바꾸면서 우리더라도 이제 그만 그 구닥다리 같은 장풍을 바꿔줘야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은근히 압력을 넣는 바람에 그림 구경이나 하지, 하고 남 따라 거를 지고 장에 가듯 따라 나선 것이 그만 회근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사실 꼭 그 말이 아니더라도 바꿀 때는 됐다. 예전에 비해 식구도 늘어났거나와 꽤나워나해도 그동안 살림살이가 늘어 여덟 짜 장풍에 이것저것 보다보면 남은 것만 해도 또 그만한 부피가 되었다. 나는 입지도 않을 옷을 쭉서 넣어두고 있다고 투정을 부렸지만, 아내의 입장으로서서는 버린다 버린다 하면서도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옷이 그때도 많아 화장실 두 개 중 하나는 아예 수납장으로 개조해 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상황에 이른 셈이었다. 그 반대다 그게 말하자면 착, 하고 버리지 못할 만큼 값비싼 장풍도 아니었다.

19년 전 아내와 내가 결혼할 무렵엔 두

집 다 거의 밑바닥까지 기울다시피 해 단칸방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식장 잡는 것, 예단, 심지어는 결혼식 하객을 위해 음식을 장만하는 것까지 돌아서 의논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형편이니 좋은 장풍을 마련했을 턱이 없었다. 아주 평범하기 짝이 없는 여덟 짜 짜리 무늬목 장풍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기서 우리란 우리 부부의 처제나 부모 그리고 조인자이자 감별사로 따라 나선 처형을 말한다. 이제는 나이나 수준(?)에 걸맞게 제법 좋은 것은



일러스테이션 盧漢秀 (서화학2-06) 동문

로 장만해야겠다는 약간의 강박관념과 이번이 어쩌면 우리 일생에서 가구를 사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비장함을 가지고 함께 마운 바람 부는 사람동거리를 돌아 연인들까지 가게 됐다.

사실 나로서는 이런 아이소렐이랄로 고문 중의 고문이었다. 그러나 일생의 한번, 마지막 기회, 이 얼마나 비장한 말인가. 그러나 다소 날씨가 맑고 발이 좀 아프다 해도 참아야 하지 않겠는가. 나중에 눈이 펴고 뚫고 다리가 풀렸지만 나는 한없이 느려진 표정으로 몇몇 가구가 낙점될 때만을 기다리며 순한 강아지처럼 따라다녔다.

그런데 그때 따라 날씨 탓도 있었지만 들어가는 집마다 썰렁하기 짝이 없었다. 불행 불행해도 이 가구거리만큼 불행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두 손을 바지주머니에 찌른 채 어깨를 축 축하고 걸어가는데, 물렁물렁한 동남아 여대생이 건너왔을 친구의 모습에 눈에 아픈지 걸려든다.

그러나 이왕이면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사지 않더라도 이것저것 보아두는 것이 낫다는 처형의 다분히 구경꾼적인 주장에 따라, 사실 실제 구매자는 우리와 처제네였으니까, 고급 가구 집에도 본의 아니게

기웃거리게 됐는데 호두나무로 조각을 해 만들었다는 가구점의 늑수레한 대머리 주인은 첫눈에 우리가 가구를 바꾸려고 버리고 버려서 왔다는 사람인 것을 눈치 채고는 막무가내로 매달리다시피 하는 것이었다.

“보아하니 나이들도 들었하시니 말이지 만 가구는 전지제품이 아닙니다. 썼다가 새로운 게 나오면 바꾸거나 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평생, 그리고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장풍을 비롯한 가구라는 말씀이올까.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아, 자동차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까짓 몇 년 타다보면 폐차나 다름없게 되는 자동차는 얼마나 비싸게 살니까. 그에 비하면 가구는 정말 톡잡아나 다름없어요. 이런 가구 하나 장만해 놓으시면 정말이지, 장만합니까만, 평생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심이 되지 않으니 다시 은근한 목소리로 덧붙혔다.

“가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사장입니다. 마음에 드는 가구만 찍으시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후 가구장까지 도는 동안 그는 정말 열심히 뒤를 따라다니며 설명을 했다. 우리가 조금 마음에 들지는 눈치를 보이자 그는

순제 하소연까지 곁들인 투로 말했다.

나 동정심 때문에 ‘평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일’을 그칠 수는 없었다. 우리는 달아나듯 그 집에서 빠져 나와 골목 어귀를 돈 다음 미처 도착할란다 도망친 사람들처럼 한숨을 돌렸다.

그렇게 두 세 집을 돌고 나니 다시 더 돌아볼 마음도 없어서 버렸다. 결국 우리는 대중 눈으로 찍어둔 어느 집쯤에서 우리 주머니 사정에 알맞은 똑같은 가격의 똑같은 모양의 장풍 틀을 골라 계약을 해버렸다. 그리하여 우리의 장풍 사냥 대장정도 끝을 맺었다.

새 장풍이 들어올 때에 나는 집에 없었다. 낮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날 새 장풍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줬다. 여덟 짜 짜리 낡은 장풍과 어머니가 쓰시면 한 칸 짜리 옷장이 그 대신 자리를 비워줘야 할 시간이 되었다. 약간의 미안하고 서운한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어쨌든가, 새로 들어올 장풍을 떠올리자 낡은 장풍은 더욱 더 낡고 허름해 보였다. 헤어져도 진작에 헤어져야 했는데 그동안 공상계나 맺었던 셈이었다.

새 장풍은 오후 두 시에 들어왔다. 나는 아내로부터 새 장풍이 들어왔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흘 짜리 연립의 삼층이어서 사람 어깨로 지고 나르느라 약간 힘이 들었다지만 그러저러 별 탈없이 잘 들어놓았다는 것이다. 아내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밝았고 힘이 넘쳤다. 새 가구를 놓으니 집안이 한결 깨끗하고 넓어진 것 같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난 것이었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어둑한 무렵 목욕을 하고 평소보다 빨리 잠으로 갔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실 무렵, 어둠 속에서 눈에 익은 물체가 서있는 게 보였다. 경비실 앞 차마 밑에 처량하게 서서 비를 맞고 있는 물체.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아침까지도 우리 집 안방에 자리잡고 있던 우리 집 장풍이었다. 그리고 그 옆의 것은 어머니의 손때 묻은 싸구려 옷장이 틀림 없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코끝이 쭈뼛져왔다. 그리고 마치 예기치 않았던 일처럼 습들의 파도가 어둠의 저쪽에서 밀려와 운운 가슴을 채우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함께 애써온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는 같이 늙어버린 조감지처럼 바라보는 느낌이 있다면 이런 것이리라. 참고 아름다운 시인에게 안방을 내어준 채 어둠 속에서 하얏없이 비를 맞고 있는 조감지처럼... 그래, 우리 사이엔 얼마나 많은 눈물과 웃음이 있었는가. 수유리 산동네, 장미원 이층집, 노원 주공아파트... 두 아이가 롱 동안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주름처럼 남아 있는가. 어머니의 옷장 역시 어머니가 처음 서울로 올라오셨을 때 가구점에 가서 손수 고르신 것이었다. 그 옷장에 어머니의 세월이 붙어 있었다.

지금 그들은 마약 그들의 세월을 다한 존재들처럼 우리들에게서 버림을 받은 채 처마 밑에 서서 묵묵히 비를 맞고 있는 것이다. 아내의 전화를 받고 들떠있던 내 마음은 일순간 사리져 버렸다. 나는 한동안 그들처럼 비를 맞으며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이윽고 큰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들려서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려갔다. 아래 위에는 아직 차가운 이른 봄비가 떨어지고 있었다.

“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실 무렵,

경비실 앞 차마 밑에

처량하게 서서

비를 맞고 있는 물체.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아침까지도

우리 집 안방에

자리잡고 있던

우리 집 장풍이었다.

”

서울대 가족

‘유동 골뱅이’ 유성물산교역 康淳杰회장

세 아들·처남·처조카·조카사위 등 16명이 동문 가족과 함께 한 칠순기념 골프서 ‘홀인원’ 기록

30년 전통의 봉조림 名賢인 유성물산교역의 주주모임, 5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유동 골뱅이’ 통조림이 이 회사의 대표식품이다. 그런데,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회장, 사장, 금융전문가, 법률전문가, 전직 약사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골뱅이·수산물·농산물 통조림을 생산한 때부터 1백20여 명의 식구들로 구성된 중소기업이지만, 맛과 품질 하나로 고집스레 그 전통을 이어온 일한 회사입니다. 저를 비롯해 사장을 맡고 있는 장남 康承模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처남 承源, 3남 承煥, 그리고 초창기 시절, 약사로서 회사발전엔 도움을 준 아내가 이 회사의 주주들입니다. 말 그대로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함께 달려온 직원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본회 장학발당 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쾌척하기도 한 康淳杰(법학54-58 유성물산교역 회장)동문을 비롯해 부인 金東淑여사, 장남 康承模(경제81-85 유성물산교역 사장)동문, 처남 康承源(불문83-87 대한투자증권 상무)동문 그리고 3남 康承煥(사법85-89 대법원 재판연구관)동문은 따로 시간을 내어 회사에 모임 필요없이 주말이 되면 康淳杰동문 집에서 편안하게 회사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의논하는 편이라고.

“우리 부부와 그 형제들이 모두 이력출신이라 아무런 연구 없이 이밖에 내러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살게 됐어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 역시 사업가적인 기질을 바탕으로 서른살의 나이에 인삼 등 한약재를 홍콩, 일본, 미국 등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무역회사를 설립해 10년 뒤인 76년부터 ‘유동’ 브랜드 통조림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왔습니다.”



좌로부터 남성 기준으로 康承模·康淳杰·康承模·康承源동문

평생 사업가로서 어려웠던 세월을 거친 康淳杰동문은 처음에는 세 아들에게는 절대 가업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고 한다.

“내가 남겨놓은 회사의 재산을 믿고 대충 살 생각은 하지 마라. 세상은 넓고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다. 유연한 사고력과 넓은 시야를 지녀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개척하라고 당부했죠. 그러다 2002년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장으로 한창 일하던 承煥를 불러 가업을 이어달라고 부탁했어. 잠시 고민하더니 본인이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회사를 일구는 것도 보람있겠다 하면서 흔쾌히 수락해주더군요.

형이 아버지 일을 돕고 있으니, 承源이는 좋은 금융상품이나 시장동향에 대해 틈틈이 업데이트해주고, 承模이는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료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니 예전보다 부자간 애정이 더 커져서 좋습니다.”

이처럼 온 가족이 서로의 전문분야에 대한 자식을 공유하며 나이 들어서도 대화가 끊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자녀들의 남다른 학창시절에서 비롯됐는데, 자녀들의 일

장에서 보면 외가 쪽에 동문이 무려 11명이나 있기 때문.

처남 金東煥(법학53-57 변호사)·金日煥(상학58-64 前정진상사 사장)·金昌煥(인학68-72 前삼회패션 사장)동문을 비롯해 처조카 金時賢(법학79-83 변호사)·金時澈(사법84-88 대법원 재판연구관)·金兌恩(약학87-91 前서울대병원 약사)·金旻秀(상리88-92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金敏熙(공업화학92-96 삼성중합기술원 근무)동문이 모교를 졸업했다.

또 조카사위 李龜杓(정치75-79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동문과 처조카사위 중에는 韓敬九(인류74-78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吳在旭(사법81-85 변호사)·金鍾赫(건축86-90 재 미국)동문이 모두 서울대 동문이다.

“세 아들과 그 사촌들이 대부분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承模가 6학년이면 1학년까지 줄줄이 거의 매일 얼굴을 보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죠. 같이 자네다 보니 자연스레 같은 대화에 들어가게 됐고요. 지금은 각자 가정을 꾸리며 바쁘게 지내느라 얼굴 보기가 쉽지 않지만, 어릴 적부터

康淳杰(법학54-58)동문 가족

장남

康承模(경제81-85)

차남

康承源(불문83-87)

3남

康承煥(사법85-89)

처남

金東煥(법학53-57)

金日煥(상학58-64)

金昌煥(인학68-72)

처조카

金時賢(법학79-83)

金時澈(사법84-88)

金兌恩(약학87-91)

金旻秀(상리88-92)

金敏熙(공업화학92-96)

조카사위

李龜杓(정치75-79)

처조카사위

韓敬九(인류74-78)

吳在旭(사법81-85)

金鍾赫(건축86-90)

든든한 ‘친구’를 얻어 둔 탓에 나름대로 화목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무역회사 사장으로 흥광 등을 돌아다녔으며, 배우기도 함다는 광둥어를 멋지게 구사하는 康淳杰동문은 지금도 직접 여행사에 연락해 해외출장 스케줄을 잡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닌다.

그때 이미 경제정책전문가가 되겠다며 일찌감치 행정고시에 합격해 15년간 공직생활을 한 장남 康承模동문은 노후우를 바탕으로 회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처남 康承源동문은 어학·문학·경영학에 두루 관심이 있어 불문학을 택했으나 졸업 후 MBA과정을 거쳐 현재 금융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으며, 3남 康承煥동문은 앞으로도 관사로 남을 예정이라고.

“제 칠순 때 손자들과 함께 용평에 갔는데, 세 아들과 함께 골프를 쳤어요. 그런데 운 좋게도 제가 홀인원을 한 겁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만간 또 좋은 추억거리 하나 만들어 가족들과 여행을 한번 가 아겠습니다. 벌써 왔으니까요.” (表)

신입생 3천3백97명 입학

李 총장 “실천적 지식인이 돼야”

모교 소식

본회에서 시집 선물

모교는 지난 3월 2일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李長茂 총장, 보직교수를 비롯해 본회 孫根상 임부회장, 許 晝사 무총장, 학부모 등 1만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학년도 입학식을 거행했다.

金完鏞 교무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공대 전기컴퓨터공학부 李

珉군이 신입생 3천3백97명을 대표해 신입생 선서를 했다.

李 총장은 식사를 통해 “우리의 사고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남겨둬야 하며 빈 공간을 채우려면 융화와 개방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탐구하는 자세로 학문을 연구하는 실천적 지식인이 되어 우리 민족은 물론 전 인류의 빛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음대 성악과 徐藝妍(성악 82-86)교수가 축가로 나폴리 민요 ‘Core Ngrato(무정한 마음)’를 불러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

했다.

2007학년도 신입생 중 여학생 합격자 비율이 모교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으며, 단과대학별로는 전통적으로 여학생 비율이 높은 간호대와 생활대가 각각 92.5%와 79.5%를 차지했고 반면에 법대와 공대 등의 경우는 34%와 17.2%로 다른 학과에 비해 여학생 수가 낮았다.

올해 다양한 신입생들이 눈길을 끈 가운데 전국 최초의 공립학원인 순창군 ‘육전인재속’에서 두 명의 학생이 농생대 바이오시스템·조경학계열과 자연대 생명과학부에 각각 합격했고, 대안학교(산청간다학교, 상남이우학교) 출신 중에서도 세 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2007학년도 신입생은 최종 등



록 결과 정시모집 합격자 1천8백44명, 수시모집 합격자 1천3백42명과 농어촌특별전형 등 정원 외 모집 합격자 2백11명을 포함해 모두 3천3백97명이다. 올해는 신입생 총 모집인원 3천2백4명 중 3천1백86명이 등록해 99.4%의 등록률(정원 외 모집 제외)을 기

록했다. 인문대·간호대·경영대·미대·법대·수의대·음대·외대는 모두 등록률 1백%를 기록했다.

한편 본회(회장 林光洙)는 1975년부터 2005년까지 모교 대학문헌상 수상작을 모은 시집(그 해 여름 안에서의 이별)을 신입생 전원에게 선물했다.

의대 의료진 31년간 최다 기록

SCI 50회 이상 피인용 논문 65편

최근 31년간 국내 의학자가 SCI 등재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중 50회 이상 피인용된 논문 수 조사에서, 모교 의과대학 소속 의료진이 총 65편을 발표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다 피인용된 논문은 내과학교실 孫大源(의학74-80)교수의 논문으로 총 3백5회 인용됐으며, 50회 이상 피인용된 논문을 3편 이상 발표한 저자는 8명으로, 이중 방사선과학교실 張基勳(의학67-71)·崔炳寅(의학68-74)·金承協(의학73-79)교수, 산부인과학교실 尹保鉉(의학75-79)교수 등 모교 의대 교수가 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올해 1월 말 대한민국학련위원회가 발간한

한국학련연구업적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의학의 연구성과를 국제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준에 따라 집대성한 최초의 의학연구수준평가 보고서로, 미국 ‘톰슨 사이언티픽(Thomson Scientific)’의 과학인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SCI)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학술지에 1974년부터 2004년까지 31년간 발표한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대상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국내 의과대학 또는 병원 소속인 논문이며, 피인용 횟수는 각 논문이 발표된 후 2006년 1월말까지 조사했다.

조사기간 중 SCI 등재 학술지에 발표된 국내 의학 논문수는 4만7

선배님, 아세요?

다양한 상징물 ⑬

雨石 張 勳선생 흉상

1946년 모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설립에 이바지하고 초대 미술학부장 및 미대 학장에 취임에 대한 발전에 혼신의 열정과 애정을 바친 張 勳선생(1901-2001), 雲石 張 勳국무총리의 친동생이며, 1996년 개교 50주년 기념식에서 제6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선정된



바 있다. 미대 교수를 지낸 故 朴世元 동문이 앞면 글씨를 쓰고 崔義亨 명예교수가 像을 제작했다. 관악캠퍼스 미술대학 50동 부근에 위치.

백64편으로, 이들 논문의 총 피인용 횟수는 33만16천5백29회로 나타났다.

50회 이상 피인용된 논문은 총

2백1편으로, 4편 이상을 발표한 의과기과는 모두 9군데로 나타났다. 모교 의대에서 총 65편을 발표해 가장 많았다.

수의대 학장에 朴龍浩 교수 임명



지난 3월 1일 모교 수의과대학 학장에 수의학과 朴龍浩(수의학74-78)교수(사진)가 임명됐다.

신임 차학장은 모교에서 1981년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91년 워싱턴주립대에서 수의·미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의원, 서울시 수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국 아이디호대와 워싱턴주립대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變)

모교 병원에 8년째 거액 출연 非동문 일식집 사장 배정철 씨

지난 3월 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배정철(사진)씨가 모교 병원을 찾아와 불우한 환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1억원을 기부했다.

배씨가 모교 병원에 거액을 맡긴 것은 이번이 벌써 8번째로 지난 1999년 3천만원을 기부한 이래 매년 액수가 늘어나 올해 드디어 '1억원 고지'에 올라선 것이다.

전남 장성에서 태어난 배씨는 어려서 상경해 16세부터 일식집 요리사로 성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국내 굴지의 일식집을 전전하며 요리 실력을 다졌다. 1992년



겨울 독립한 이후,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한 덕에 이제는 알아주는 일식집 사장으로 자리잡았다.

배씨는 이 때부터 어려웠던 자신의 지난날을 돌이키며 손님 한 사람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의 이익금에서 1천원씩을 적립해 불우

이웃을 돕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금액을 3천원으로까지 늘렸다.

1999년에 단골 손님이면 모교 성형외과학교실 金石集교수로부터 얼굴기형으로 힘들어하는 어린이 환자들의 딱한 얘기를 전해 듣고 모교 병원에 거액을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배씨는 또 매년 모교 병원이 불우환자 지원기금 마련을 위해 개최하는 자선바자회에 1천만원 어치에 가까운 초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배씨는 "어린 시절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려울 때마다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李炳勳 소아과의 원장 의과대학에 1억 쾌척

의과대학동창회 부회장과 소아과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李炳勳(의학60-66 소아과의원장) 동문(사진)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1천만원씩 10년에 걸쳐 총 1억원을 모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발전을 위해 기증기로 약정했다. 지난 3월 13일 모교 王主敎학장에 제 세 번째 출연금으로 1천2백만

원을 전달했다.

李동문은 2000년 의과대학동창회 함춘회관 건립기금으로 2천만원, 2002년 의사협회 발전기금으로 2천만원을 출연한 바 있다.

李동문은 현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중경부총회 및 자문위원으로 있으며, 국제라이온스 국제회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감사장을 받았다.

국문과 출신 鄭大錫 씨 모교 국악과 교수 임용

음악대학(학장 申秀堉)은 KBS 국악관현악단 악장 등으로 활동하며 거문고의 인자라는 평가를 받은 鄭大錫(사진)씨를 최근 국악과 교수로 임용했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鄭교수는 非음대 출신으로는 첫 모교 음대 전임교수가 됐다. 이번 학기부



터 거문고 전공·심습 강의와 정악 합주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鄭교수는 1967년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양성소에 입학한 뒤 줄곧 거문고 연주자의 길을 걸어왔다.

1975년 단국대에는 국악과가 없어 국문과에 입학했다. 국악 동아리에서 거문고 연습을 계속한 그는 1985년 KBS 국악관현악단 장단 때부터 거문고 수석연주자를 맡았고 한양대, 이화여대 등에서 강사로 거문고를 강의해 왔다.

鄭교수의 큰딸은 가야금을 전공하고 지난 2월에 모교를 졸업한 鄭연수(국악03-07)동문이고, 작은딸은 모교에서 해금을 공부하고 있다. (雙)

재학생의 소리

“후회없는 대학생살 통해

정체성 확립하겠습니다”



朴寶羅
(사회과학계열07입)
신입생·본화 장학생

얼마 전 초등학교를 재내면서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봤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문득 제가 고등학생 때와 다르게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특히 수업을 준비하는 고3때 어린애들을 보면 정말 부럽고,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성적, 입시걱정 없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생이 되어 서 있는 그 순간,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에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힘들게 이뤄놓은 제 성취가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인생의 첫 관문이라는 입시를 제가 원하던 학교의 비라던 학교에 들어감으로써 성공적으로 넘었기 때문입니다.

제 목표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에 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왜 서울대학교를 지망했으며 왜 사회과학대를 원했나고 물어보면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사회과목을 공부하면서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경제학을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고 그 수업을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님들께 듣고 싶었습니다. 또한 뛰어난 학우들과 경쟁하면서 저 자신의 발전을 이루고자하는 욕

심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생살을 통해 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싶습니다. 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국토 방방곡곡, 더 넓게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로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다양한 나라,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보고 싶고, 연극, 뮤지컬 등 넓은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강의도 한 분야에 집중되지 않게 종교, 역사, 산업 등 다양하게 수강해 제 지식의 지평을 넓히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막 첫발을 내딛은 새내기로서 저는 후회 없는 대학생살을 통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선배님들께서도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후배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주세요.

정년교수 프로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모교에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 교수 24명의 정년식이 지난 2월 28일 문화관 증강실에서 열렸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무순>



李承浩교수 영문학

64년 모교 문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69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82년 뉴욕주립대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4년 모교에 부임 후, 르네상스 영문학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한국세계사학회회장, 모교 지역융합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申勝浩교수 독문학

64년 모교 문리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74년 하이델베르크대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80년 모교에 부임 후, 독어학의 통사론의미론 연구와 강의를 했고, 독어독문학과 학과장, 독일어문화권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吳金成교수 동양사학

64년 모교 사범대 사회교육과 졸업. 모교에서 68년 석사학위, 86년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72년 모교에 부임 후, 중국사학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 동양사학회장, 모교 동양문화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鄭仁壽교수 동양사학

64년 고려대 문과대학 졸업. 78년 미시간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94년 모교에 부임 후, 동남아시아사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동양사학과 학과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베트남사' '새로 쓰는 베트남의 역사' 등이 있다.



黃秉浩교수 정치학

64년 모교 문리대 정치학과 졸업. 67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85년 인디애나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5년 모교에 부임 후, 정치학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한국공공선택학회장과 모교 정치학과장, 사회과학대 학장 등을 역임했다.



金成基교수 수리과학

65년 모교 문리대 수학과 졸업. 69년 석사학위, 86년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1년 모교에 부임 후, 해석학 연구와 강의를 하고 대한수학회, 학교법인 상학회 이사, 국제수학올림피아드위원장, 모교 수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金秉基교수 화학

66년 모교 문리대 화학과 졸업. 68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75년 텍사스공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에 부임 후, 유기화학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기초과학연구원 공동기원장, 화학과 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李正仁교수 지구환경

64년 모교 문리대 지질학과 졸업. 76년 브리티시컬럼비아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99년 모교에 부임 후, 인공위성 지구물리학과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국제측지학 및 지구물리연합회 한국위원장, 유엔우주항공국 ENVISA 위성 책임연구원을 역임했다.



李勝玉교수 간호학

63년 모교 의대 간호학과 졸업. 66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81년 인디애나대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0년 모교에 부임 후, 성인간호학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성인간호학회장, 모교 간호과학연구소장, 간호대 학장 등을 역임했다.



尹修基교수 재료공학

65년 모교 공대 금속공학과 졸업. 71년 캘리포니아(버클리)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2년 모교에 부임 후, 금속 및 재료공학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대한금속재료학회, BK21 재단연구인력양성사업단장, 신소재공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李正仁교수 지구환경

63년 모교 공대 광산학과 졸업. 65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74년 토호쿠(東北)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5년 모교에 부임 후, 광산공학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한국자원공학회, 모교 에너지자원기술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金秉基교수 식물재공학

66년 모교 공대 원자력공학과 졸업. 72년 MIT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3년 모교에 부임 후, 원자력심해설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한국원자력학회, 모교 공대 교무담당학장보, 원자력공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宋相現교수 법학

63년 모교 법대 법학과 졸업. 70년 코넬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2년 모교에 부임 후, 상법과 민사소송법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부역위원회 위원장,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모교 법대 학장 등을 역임했다.



金秉基교수 윤리교육

65년 모교 문리대 외교학과 졸업. 77년 신시내티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에 부임 후, 북한정치 및 국제정치학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한국전쟁을관리위원회, 한국국제협력회, 모교 국민윤리교육과 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崔惠美교수 식품영양

64년 모교 문리대 화학과 졸업. 73년 플로리다주립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에 부임 후, 영양학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대한영양학회 회장,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모교 생활과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金秉基교수 수의학

66년 모교 농대 수의학과 졸업. 68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77년 호주 퀸스랜드대에서 수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 후, 조류질병학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한국가금학회, 모교 수의대 학장 등을 역임했다.



金秉基교수 성악

65년 음대 성악과 졸업. 71년 줄리아드에서 음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74년 모교에 부임 후, 성악학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모교 오페라연구소장, 성악과 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국내외 오페라에서 3백여 차례나 주역으로 출연했다.



金秉基교수 의학

66년 모교 의대 의학과 졸업. 68년 석사학위, 74년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2년 모교에 부임 후, 생리학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대한생리학회 이사장, 한국과학기술인 의과학센터 소장, 모교 의대 교무·학생담당학장보 등을 역임했다.



鄭弘基교수 의학

66년 모교 문리대 화학과 졸업. 76년 석사학위, 79년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8년 모교에 부임 후, 생화학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대한생화학회, 한국BRM학회 등을 역임했다. 모교에 발전기금 1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金宇基교수 의학

66년 모교 의대 의학과 졸업. 70년 석사학위, 73년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4년 모교에 부임 후, 소아외과학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대한외과학회, 한국소아외과학회, 미국 소아외과학회지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다.



李正基교수 의학

66년 모교 의대 의학과 졸업. 69년 석사학위, 73년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4년 모교에 부임 후, 내과학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모교 한의학연구소장, 의대 학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감사 등을 역임했다.



金光基교수 행정학

62년 모교 법대 행정학과 졸업. 65년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71년 하와이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2년 모교에 부임 후, 행정학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한국사회과학회 회장, 모교 행정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盧在基교수 치의학

65년 모교 공대 섬유공학과 졸업. 69년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75년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에 부임 후, 행정학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한국정책학회, 모교 행정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高在基교수 치의학

67년 모교 치대 치의학과 졸업. 69년 석사학위, 74년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5년 모교에 부임 후, 치의학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대한구강해부학회, 대한기초치의학협회 회장, 모교 치대 학장, 평원의회의 의원 등을 역임했다.

동문기자 취재수첩

‘구경거리 북한’과 ‘골치 아픈 북한’

한 달 전 아침, 데스크로부터 걸려온 전 화는 웅변한 주말의 시작이었다.

“마카오를 좀 다녀와주세요. 김정남 때문에...” “언제요?” “바로 오늘!”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시작된 닷새간의 마카오출장은 사실 통일부 출입기자로서는 겪기 힘든 현장취재, 사실은 무작정 해매기의 시작이 되고 말았다. 김정남,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지만 지난 2001년 일본에 밀입국하다가 추방당해 북한을 망신시킨 뒤로 후계구도에서 밀려나 은둔한 그를 찾기는 사실 불가능했다. 마카오의 호텔에서 두 차례 일본 언론에 목격됐지만 그 뒤 다시 풍광 숨은 그는 필자의 출장기간 내내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도 자꾸자꾸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매며 다녀야 했던 나는 그야말로 김정남의 라이프스타일에 의거해 마카오 시내를 돌았다. 한 기에 10만원을 한다는 고급 일식집, 그 집의 초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꼭 들른다는 바로 옆 생과일 주스가게, 가끔 옷을 맞추는 명품 양복점, 그리고 어렵사리 들어간 카지노 VIP룸까지.

고민끝에 탐문에서 알아내기도 했지만 사실 김정남의 이런 생활상과 심지어 단골 가게들은 이미 일본언론이 거의 파악한 상태였다. 출장기간 내내 어떤 호텔, 어떤 한인식당을 가도 일본기자들이 죽고도 앉

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알아보니 일본의 방송과 신문사들은 전 아카이저에게 있는 모든 특과원을 마카오에 집결시킨 상태여서, 방송의 경우에는 한 회사 당 영상취재팀만 5~6개 팀을 요소요소에 배치해 놓은 정도였다.

일본열도를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문제도, 핵도 아닌 버림받은 북한의 후계자가 도대체 무슨 뉴스가치가 있을까 싶었던 나, NHK기자를 붙잡고 물어 질문을 던졌는데 그의 대답은 상당히 어이없는 그러나 명답이었다. “김정남은 못생긴 배꼽이다.”

이젠 뉴스 주 시청자가 된 일본의 주부들은 일찍이 한번 일본에 몰래 들어오려다 쫓겨난 잔력이 있는 북한의 만나니 왕자가 오려는 어떤 TV에 나왔는지 보려고 채널을 맞추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대중은 잘생긴 배꼽이나 배웅준 같은 영웅에도 열광하지만 때론 전하의 말쑥정미의 이른바 ‘나쁜 뉴스’에도 역시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사실은 북한자체가 일본언론에게는 일본 국민을 납치하는 위험한 ‘악의 축’이며 기쁨조와 술에 취해 사는 우스꽝스런 독재자와 그 아들의 ‘제1남 나라’이기도 한 것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자 언론의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답변인 것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미국과 북한의 두



全 奉 基
(연문정보92-98)
MBC 정치1팀 기자

“북한을 ‘구경거리’로만 바라볼 편한 처지가 아니라라는 게 문제다”

기관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형국인 핵문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끼어들 자리가 좁은 우리의 제한된 입지, 여기에 남한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팔과 비뚤어진 큰 관심, 북한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자 언론의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답변인 것이다.

김정남을 다른 국내언론의 뉴스도 김정남의 호화저택과 생활에 초점을 맞춘 연성 뉴스였지만, 그러면서도 북한의 후계자가 왜 해외를 떠돌는지 이것이 북한의 권력승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담아내야 했고 그게 일본언론이 아닌 우리언론의 숙제였다. 하지만 마카오에서 만든 내 뉴스가 과연 그러했는지, 나 또한 일본기자들처럼 구경거리로만 볼 수 없는 북한을 구경거리로 만들어보려 한 뉴스가 아니었는지 아쉬움이 앞선다. 사실 그 이후 내가 쓴 어떤 다른 기사들, 남북장관급회담 결과나 6자 회담에 나서는 북한의 태도 같은 기사들보다는 ‘마카오의 김정남’을 다뤘던 그 몇 편이 훨씬 더 많은 클릭과 댓글을 기록했으니...

북한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의 혼재는 북한뉴스를 만드는 기자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함께 처한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을 ‘구경거리’로만 바라볼 편한 처지가 아니라는 게 문제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만 해도 만명일 만큼 그들의 문제는 이미 우리의 한숨이 됐다. 또 가까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북한정권의 변화는 바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가져올 사건이 될 것이다.

북한을 다루는 뉴스를 일본의 기자들처럼 재미있게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짧게 변명해 본다.

동문기자 취재수첩

뛰어난 사고현장 ... 질문은 ‘괴로워’

지난해 10월 3일 날씨가 화창했던 개천절, 다른 이들에게는 달콤한 휴일이었지만 ‘사건 기자’인 필자에게는 참 길고 힘든 하루로 기억된다. 왜냐하면 그 날은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29중 추돌사고가 일어나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날이기 때문이다.

평소보다 느긋한 마음으로 출근했지만 그날의 여유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출근하자마자 서해대교에서의 사고 소식을 들었고, 현장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평소 같으면 1시간 정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지만 사고 여파로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려 도착했다. 사고가 웬만큼 수습이 됐을 때 도착했지만 아직도 현장은 말 그대로 아주 장악이었다. 서울 방면은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전면 통제된 상황이었다. 승용차, 트레일러, 승합차, 버스 등이 뒤엉켜 사고가 난 현장에는 볼에 탄 제티미들이 한 원기를 뽐내고 있었다.

이 날의 첫 번째 임무는 이곳에서 사고가 나게 된 경위와 현장의 분위기 등을 전하는 것. 모두들 정신없이 바쁜 상황이었지만 경찰관과 소방관을 상대로 취재하는 것은 그나마 편한 일이었다.

하지만 다음 임무는 ‘인간적으로는’ 정당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사고 현장을 떠나 이동한 곳은 다진 사람들이 이송된 병

원. 여기서 해야 할 임무는 이른바 ‘예기가 되는’ 가슴아픈 사연을 찾는 일이다. 모든 희생자가 안타깝지만 그 중에서도 가사거리가 될 만한 사연을 찾는 것은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족이 목숨을 잃어서, 혹은 크게 다쳐서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가가 말을 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 사람에게 사망자(혹은 부상자)와 어떤 관계인지, 나이는 얼마나 됐는지, 그 곳을 지나고 있었는지,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 등을 취조하듯 꼬치꼬치 캐묻는 것은 대답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묻는 사람도 불편한 마음일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결코 묻고 싶지 않지만 기자라는 직업을 가졌기에 할 수밖에 없는 ‘짓(?)’이다.

그 날도 여러 병실을 돌면서 여러 차례 ‘들어와!’를 시도했다. 몇 번을 반복하다 한 병실에서 30대 후반의 여성을 만났다. 많이 다치기도 했지만 얼마나 웃었는지 눈이 동동 부어있었다. 병실에 붙속 들어온 것조차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몸 상태부터 물었다. 하지만 그 분은 “반써 다 말했는디 또 말해야 되느냐”며 험든 기색을 내비쳤다. 병원에는 많은 기자들이 있었고, 이 병실에도 다른 기자가 다닌 것 같았기 때문이다.



柳 德 泳
(사회교육96-03)
세계일보 사회부 기자

“사고현장에서 사고거리를 찾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말까지 들으면 질문을 하는 것이 더욱 미안해지지만 ‘일’을 하러 온 기자인 탓에 질문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느냐, 왜 서울로 가려 했느냐, 사고 당시 상황은 어땠느냐 등 질문이 이어졌고, 힘겨운 대답이 뒤따

랐다. 여러 질문을 통해 이 여성은 중학생 아들과 함께 서울 천정에 가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화를 당했고, 아들이 죽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질문 하나가 남았다.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내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을 바로 앞에서 잃은 부모에게 하는 질문으로는 너무나 어리석고, 잔인한 질문이다. 그 괴로운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질문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기자에게는 당사자의 입에서 나온 ‘멘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질문은 그 여성은 사고 현장에서 쫓겨온 파묻은 운동화를 바라보며 “우리 아들 피 예요!”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런의 다른 병원 영안실에서 오랜 일들은 반복됐다. 배우자 혹은 부모의 죽음을 두 눈으로 확인한 뒤 뒤편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해야 하는 난한 상황은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이런 경험은 기자들에게는 흔한 일이다. 특히 수습기자 시절 장제식장소에서 질문을 하다 먹살을 잡혔다가, 육을 먹고 쫓겨났다는 경험담은 수도 없이 많다. 기자들이 이런 ‘사람이 할 짓이 아닌’ 일들을 계속하는 것은 나름의 손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기자는 목을 먹고, 먹살을 잡혀도 어떻게 만들어진 기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길 바랄 뿐이다.

문물기고

대자연의 제4의 색 元素

상도동에서 종양대 농선을 넘어 한강 편으로 보는 경치는 때마침 가을을 맞아 도취될만한 '빛의 향연'이다. 한강 흐름의 푸른 파 넘어 용산 편에는 아침 햇빛에 '백과 암벽'과 같은 아라트의 巍立들이 있고, 여러 서 울주리꽃 꽃터 저 농선을 넘어서 지금은 단풍의 노란빛이 펼쳐지고 있다.

젊은 갈색의 마른 잎새 팔랑거린 가지들을 힘겹게 받치는 듯 검고 앙상한 줄기 그늘에 따로 서서 붉을 뽐는 듯한 단풍나무의 성령도 눈에 시리고, 죽어 사면에 매그려나 아침 광선의 조망을 받는 외롭이 새끼 은행나무의 나무나도 뚜렷한 윤곽이 눈에 보인다.

"그래도 죽지는 않았다"고 소리치는 듯 같은 수양버들의 녹색 잎사귀들과 그 뒤를 받치고 있는 종대병인 회색의 벽, 그리고 저 오른쪽 시야 끝에서 아침 광선에게 강렬하게 진한 빛을 드러내는 검푸른 전나무들, 이러한 것들이 한국의 전형적인 가을빛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늦게 서양의 '힐리의 세계'에 참여하게 된 한국의 과학교육은 이 모든 빛의 바탕에 깔린 것이 '빨강, 노랑, 그리고 파랑'이라는 삼원색이고, 그리고 그것뿐이라고 가르친다.

한국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머리가 커서 모든 것을 생각 속에 굳히고 그 '개념'을 통해서만 사물을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배운 바에 따라서 '모든 빛은 예외 없이 삼원색'으로 분해되고 이 삼원색이 주는 세 감각의 배분이 빛깔의 전부인 것으로 배우고, 또는 그렇게 알고 일생을 산다.

그것은 관념의 세상이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것, 모든 사물이 몇 가지 '요소'들로 분석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러한 몇 개의 물리화 원리들이 대부분 한국사

람들의 머리 속에 자리를 잡아 우리들의 시각이나 청각 등 모든 감각과 지식을 결정해서 파악된 관념들만 알고 현실은 보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국사람들은 실화적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사람들은 무척 관념적인 즉속인 것이다.



安秀吉
(통신공학50-57)
모교 전기컴퓨터공학부
 명예교수

이와 같이 신앙적 '관념'이 현실을 차지케 하면서 억지 삶을 사는 것은 우리 東夷와 歐西의 후손들의 특징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그러한 '관념'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심리실험'을 시도하기로 한다.

인간의 혀바닥에는 몇 가지 종류의 味蕾들이 달려 있어서 그것들이 미각을 결정한다. 그러나 달고·맵고·시고·짜고·쓴맛 이외에 다른 요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씹은 맛은 미각이 아니고 '탄닌'이 지방을 굳히는 데서 오는 '가루의 감각'인 것이다. 다시 말해 미각이 아닌 일종의 감각이 '미각행세'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별 생각 없이 미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상 미각' 행세를 하고 있는

미각 외 요소(뽀은맛이라는 혀의 촉각)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각문제도 돌아오자면 삼기 시각의 '빨강·녹색·파랑'이라는 삼원색 이외에도 색채 감각의 요소라고 할만한 것에 '光度'가 있다. 이 광도 역시 거의 독립적인 색감요소로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원래 '광도'란 삼기 '빨강·녹색·파랑'이라는 삼원색의 강도를 가중치 처리를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색'이란 근원적 요소, 즉 원인요소가 아니고 '중속적'으로 결정되는 함수'이지만 그래도 준독

“

한국 사람들은
'모든 빛은 예외 없이
삼원색'으로 분해되고
이 삼원색이 주는
세 감각의 배분이
빛깔의 전부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광선이
풍부한 한국 대자연의
색감이 바로 제4의
원색이다.

”

립적인 생리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것이 햇빛 강한 경지에서 보게되는 '뿌연' 느낌이다. 이것이 삼원색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광감각을 구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유난히 광선이 센 지대의 일상생활에서 보면 광선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뿌연' 느낌이라는 것은 항상 개입하고 있는 시각작용인 것이다. 옛날에 한밤도는 몹시 한랭한 땅이어서 광도가 강했는데 '열선' 성분은 적고, 자외선부분이 강했다. 따라서 더 유난히 이 '뿌연' 광경을 많이 접하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광도를 제4의 시각요소로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매년 5월 1일(May Day)에 펼쳐지는 '노동절' 제전에서 붉은 초록, 붉은 하늘빛, 붉은 분홍빛의 단색의 깃발들은 사람들의 눈에 '스며드는 듯한 아름다움'이라고 한다.

'Mir, Mir(미르 미르)'라는 구호는 흔히 우리가 갖고 있는 소련이란 '냉전종주국' 인상과는 동떨어진 '평화! 평화!'라는 구호인데, 이러한 구호가 요란한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의 '평화행진'에 사용되는 그 많은 단색깃발이 띠는 붉은 빛들의 아름다움은 소련사회주의를 홍보하는 전 세계에서 모인 사회주의자들의 광선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곳 자연광의 '저항'할 필요가 없는 약한 광도때문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프랑스에서 유학하게 된 사람들이 그곳 농가의 '회반죽 빛의' 벽들을 보면 어찌나 눈에 편하면서도 오묘한 빛깔을 내는지(미술과는 관계도 없는 시류들까지도) 화가가 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때가 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살고 있는 '약한 광선'의 자연환경에서 오는 것으로, 암실에서 프리즘을 가지고 하는 분광실험과 같이 그것은 눈에 부드러운 무지개의 빛깔인 것이다. 그러한 풍토에서 광선을 분해해 '3색으로' 그리고 '3색만으로' 모든 색채를 분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다시 창가에 와서 내다보는 늘성의 광경은 그 사이 벌써 '뿌연 빛'이라는 '光의 원소'를 제외해서는 느낌으로 와 닿지가 않는 '낮의 빛'으로 바뀌고 있다. 아침이란 '새다른 시간'이 흘러버리고 '일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단풍나무의 색깔 같은 '붉은 빛'은 달라졌고 새끼 은행나무의 선명했던 윤곽도 흐려지고 있다. 눈에 부드럽게 스며드는 아침 광선에 뚜렷하게 드러나던, 색조 강하게 매점을 덮고 부각됐던 모든 '선명함'은 강한 대낮 빛의 '평균훈 분부심'으로 뿌연 느낌 속에 점점 묻혀서고 있는 것이다.

이 광선 풍부한 한국의 대자연에 중요한 기초를 이루는 색감이 바로 우리의 시각을 위해 빼놓을 수가 없는 '광도'라는 제4의 원색인 것이다.

동정

수상

▲鄭憲漢(교육45-49 한림대 석좌 교수)=최근 한림대 설립자인故 一松尹德善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2회 일송상 수상.

▲金南輝(국어교육47-51 숙명여대 명예교수)=지난 3월 19일 제11회 민해대상 문학부문 수상자에 선정. 8월 12일 수상.

▲李宗勳(전기공학53-57 前한국전력 사장·파워비전설립 대표)=지난 3월 7일 한국공학한림원이 수여하는 제11회 공학한림원 대상 수상.

▲柳宗鎭(영문57을 연세대 석좌 교수)=지난 3월 19일 제11회 민해대상 학술부문 수상자에 선정. 시상식은 8월 12일.

▲柳根一(정치56인 前조선일보 주필)=지난 4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대한인문언어가 수여하는 제2회

林升準자유언론상 수상.
▲金 旻(기약60-64 모교 기약과 교수)=지난 3월 22일 한·폴란드 음악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폴란드

정부가 수여하는 '폴란드 문화훈장' 수훈.

▲李亨勳(법학62-66 한화 부회장)=지난 3월 21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상공업계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 산업훈장 수훈.

▲沈名錫(토목공학69-73 인하대 교수)=지난 3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5회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홍조 근정훈장 수훈.

▲任志鎭(물리70-74 모교 물리전문화부 교수)=지난 3월 27일 서울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제1회 포스코청암상(과학상) 수상.

▲金宗來(사회71-75 조선일보 출판국장)=지난 3월 6일 한·몽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몽골 정부로부터 '복귀성 훈장' 수훈.

▲許大錫(의학74-80 모교 내과학교실 교수)=지난 3월 6일 한국말재단과 보령제약이 제정한 제6회 보령안화술상 수상.

▲鄭德均(전자공학77-81 모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지난 3월 7일 한국공학한림원이 수여하는 젊은 공학인상 수상.

▲李榮都(AMP 54기 GE헬스케어 부문 아시아 총판 사장)=지난 3월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IMI)이 수여하

는 우수강연상 수상.

▲任炳勳(AIP 19기 텔스타호텔 대표)=지난 3월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IMI)이 수여하는 우수지식경영인상 수상.

▲俞 熹(행정49-54 모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경기도개발연구원 상임고문)=지난 3월 16일 인천지역 인사들의 전록모임인

인천장우회 제11대 회장에 선출.
▲李基俊(화학공학57-61 前모교 총장·모교 화학생물공학부 명예교수)=지난 2월 27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에 선출. 임기는 내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卞柱仙(영어교육60-64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前세제건설 카우터연맹 아태지역 회장)=지난 3월 2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6대 회장에 재선임.

▲朴勝永(화학61-66 前금호석유화학 대표)=지난 3월 9일 정밀화학 소재 기업인 휴켄스 대표이사

에 선임.
▲安國正(사학63-70 SBS 대표이사 사장·관악신문인화 감사·본보 논설위원)=지난 3월 9일 SBS 부회장에 선임.

▲金秀雄(행정64-72 前SBS 사육

건설단장·방송지원본부장)=지난 3월 9일 SBS 대표이사 부사장에 선임.

▲南永台(경제65-69 前한국증권거래소 부이사장·경영고문)=지난 2월 23일 한국 IR 협의회 회장에 선임.

▲金鍾勳(농경제67-72 매일경제 TV 전무·본보 논설위원)=지난 3월 15일 매일경제 TV 부사장에 선임.

▲宋斗煥(법학67-71 前서월형사지법 판사·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지난 3월 23일 연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

▲朴世敏(공민교육68-75 대한주택공사 사장)=지난 3월 21일 서울 잡실 롯데호텔에서 대한근대5종연맹 제13대 회장에 취임.

▲黃健豪(경영70-74 한국증권업협회장)=지난 2월 8일 한국증권업협회 총회에서 제46대 회장에 재선임.

▲趙煥復(무역71-76 前주중국공사·前주총통 총영사)=지난 3월 7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차관 급)에 임명.

▲金鍾享(의학71-77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연구원장)=지난

3월 20일 한국원자력의학원 초대 원장에 선임.

▲崔賢淑(가정관리76을 한국은행 감사역)=지난 2월 28일 한국은행 최초 여성 감사팀장에 임명.

▲李萬珠(정치75-80 前부산방송 상무)=지난 3월 16일 부산·경남 대표채널 KNN(Korea New Network) 사장에 선임.

▲鄭勝敏(의학82을 동국대 교수)=지난 3월 1일 동국대의과대학 부속 경주병원장(제8대) 및 포항병원장(제12대)에 선임.

▲劉小瑛(성약84-88 명지대 교수·소스프랑스)=최근 경북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에 임용. 이번 학기부터 강의.

▲趙影來(AMP 11기 효성그룹 회장)=지난 3월 20일 서울 전경20일 회관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총회에서 총회에 선출.

▲金光斗(SGS 37기 지층종합조경 회장·상명대 겸임 교수)=지난 3월 1일 한솔에너지 코랜드 회장에 취임.

▲河今烈(ALP 1기 前SBS 미디어정책실장·보도본부장·상인상단 역)=지난 3월 9일 SBS 사장에

1년에 한번 모교 발전과 동창회 결속 및 활성화를 위한 회비납부

동창회비는

- 후배들의 장학사업
- 동문 사회의 가교 역할을 위한 동창회비 발행
- 동문 결속과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 모교 각종 지원사업에 소중한 기여를 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번거로운 연회비를 쫓는 한번 납부로 잊어버리세요.

		연 령 별	
		65세 미만	65세 이상
일 반	연 회 비	30,000	
	평생회비	300,000	200,000
이 사	연 회 비	100,000	
	평생회비	700,000	500,000

- 동창회비(매월) · 포켓용 다이어리 및 탁심달력(11월중)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창회 관련 각종 행사 안내를 직접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 1. 동창회비에 동봉된 회비 납부 지로 용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지로 또는 은행 자동화기 납부.
2. '신한은행 397-03-002804 서울대학교동창회, 계좌로 ON-LINE 입금 (입금시 성명과 입학년도 기재)
3. 동창회 홈페이지(www.snua.or.kr)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홈페이지 회원가입후 이용가능)
- 납부확인방법 : 1. 매월 발행되는 동창회비에 입금돈문 게재
2. 동창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본인 입금내역 실시간 검색가능.
- 동문님의 주소 변경시 전화연락 또는 홈페이지에서 수정가능 합니다.
- 자세한 안내는 02) 702-2233 총동창회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徐仙鶴(SGS 4기 한국사회복지
개발원장·서울
시도시정도공자
한강진역장)=
최근 세계학생
[IN]집행위원장.
국민생활체육
파구 북상연합회장, 세계일보 조
사위원, 전남발소비추진운동본부
홍보위원, 서울일보 논설위원에
위촉.

행 사

▲柳俊賢(법학51-66 李東寧선생
기념사업회 상
근부회장)=지
난 1월 31일 서
울 국립현충원
및 충암대 무후
선열제단에서 誠
齋 李東寧先生 72주기 추모식 및
위패 봉안식 개최.
▲李瑞熙(정경51-55 李東寧선생
기념사업회장)
=지난 3월 13
일 서울 효창공
원에서 石厓 李
東寧선생 순국
67주기 추모식
개최.
▲李吉女(의학51-57 경원대 총
장·가천 길재단
회장·본회 부회
장)=지난 3월
11일 서울 예술
의 전당 콘서트
홀에서 경원대와
경원전문대학 통합 원년을 기념하
는 음악회 개최. 또 26일 인천 송

도동 가천의과학대 알·당뇨연구소
기공식 및 심포지엄 개최.
▲朴永寅(농학56-62 한국자조금
연구원 이사장)
=지난 3월 21
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산
업과 정부의 공
동 프로그램 인
'할자조금도입방안' 토론회 개최.
▲俞東善(잠사56-60 羅憲錫기념
사업회장·수원
지부동창회장)
=오는 4월 28
일 경기도 여성
비전센터에서 鼎
月 羅憲錫선생
탄생 111주년을 기념해 '羅憲錫
비로 알기 심포지엄' 개최.

▲鄭元錫(생물교육58-63 한국과
학교육단체총연
합회장)=지난
3월 20~21일
전남산림리조트
컨벤션 홀에서
'과학교육, 미래
를 바꾼다'는 주제로 전국과학교
육담당자세미나 개최.
▲吳世榮(국문61-65 모교 국어국
문학과 교수·한국사인협회장)=
지난 3월 24일 서울 예장동 '문화
의 집·서울' 부설 산림문화관에서
한국사인협회상 및 젊은 시인상
시상식 개최.
▲李芳淑(가학61-65 연세대 교
수·한국소셜협
회 부회장)=지
난 3월 31일 서
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피
아노 트리오 콘

서트 개최.

▲李錫澤(금속공학64-69 포스코
회장·한호주 경
제협력위원장)
=지난 3월 15
일 호주국립대
에서 명예과학박
사학위 받음.
▲金春玉(회화64-68 한국화여성
작가회장·인하
대 겸임교수)=
지난 3월 28일
부터 4월 14일
까지 서울 인사
동 선화관·산아
트센터에서 '자연-관계성'을 주
제로 개인전 개최.
▲李元龍(전속66인) 덕성여대 교
수·본보 논설위
원)=지난 2006
년 9월 25일부
터 매주 월요일
중앙일보에 '이
원복의 세계사
(史, 事) 산책' 개재. 또 최근 교
양문화 '가로세로세계사' 시리즈
발간(1권). 동남아시아(2
권), 중동(3권)편을 펴냄.

▲柳子李(철학교육68-75 前SBS
라디오본부장·
한국방송기자협
회 회장)=지난
3월 23일 서울
63빌딩에서 의
교정상부 宋受享
장관 초청 토론회 개최.
▲崔敬孚(철리교육68-72 한국교
육대 교수·한국
환경교육학회
장)=지난 3월
31일 한국교원
대에서 국제환경
탐구원립아이드

에서 임상의학, 기초생명과학, 응용생명과학의 도약을 위한 포럼
개최.
▲林榮元(국학76-80 모교 국악과
교수·대전시립 연정국악원 지휘
자)=지난 3월 23일 서울 국립국

악기대표 선발 및 한국환경탐구원
원립아이드 개최.
▲崔甲鎬(경대원72학 한국전쟁문
학회장·대한인
국 盟友會 안보
평론위원)=지
난 2월 24일 인
천 간석동 성산
현대학원대학교
에서 명예과학박사학위 받음.
▲康一宇(삼우공학71-75 김&강
국제특허법률사
무소 대표변리
사·아시아변리
사회 한국협회
장)=지난 2월
27일 서울 여산

동 삼정호텔에서 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 정기총회 개최.
▲徐錫浩(화학공학72-76 모교 농
생명공학부 교
수·생명 공학공
동연구원장)=
지난 4월 4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생명대학의실
에서 임상의학, 기초생명과학, 응용
생명과학의 도약을 위한 포럼
개최.
▲林榮元(국학76-80 모교 국악과
교수·대전시립 연정국악원 지휘
자)=지난 3월 23일 서울 국립국

악원 우면당에서 제8회 대금동주
회 개최.
▲姜忠棟(가학79-83 한국예술종합
학교 교수·피
아니스트)=지
난 3월 23일 서
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한·
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중국
국립삼십니오케
스트라와 라흐마
니노프의 '파가
니니 주제에 의
한 관악곡' 협
연. 부인 李惠全(가학79-83 숙명
여대 교수·피아니스트·올림픽동
화 부회장)등은 지난 3월 29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네
번째 '베토벤 소나타 전국 연주 시
리즈' 개최. 李惠全은 생화학과학
대학총회장을 역임한 서경대 李仁
子(가정교육55-59) 석좌교수의
장녀.
▲韓祐三(AMP 34기 태양금속공
업 회장)=지난
3월 1일 경기도
안산의 태양금속
공업에서 창립
53주년 기념식
을 열어 장가근
수자 포상.

'동성'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211호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empal.com
• 전 화 : 02)886-2219 • 팩 스 : 02)886-2218

신 간

전 주멕시코 대사
구송희 회고록
-具忠會 지음

미국과 중
남미를 상대
로 활발한 외
교활동을 펼
쳤던 前주메
xico 대사인
具忠會(법학
48-52 한국
외교협회 기공전간동호회장)등은
이 35년간의 외교관 인생 이야기
를 담았다.
일제시대에 태어나 힘들게 보냈
던 어린시절, 그러나 큰 꿈을 품고
법대에 진학한 성장기, 외무부
에 들어가 활동했던 청년기 시절,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며 지내는
은퇴 후 시절까지 具忠會의 모든
인생이 집약돼 있다. <삼파잡간·

값15,000원)
네오 히포크라테스
선서/마리아의 초행길
-沈英輔 지음

가천의대
김병원 기획
조정실장, 의
료보험연합회
상근사무위원
등을 역임한
沈英輔(의학
55-61) 동문
이 펴낸 수필
집과 여행기.
'네오 히포
크라테스 선
서'에는 의학
동인, 의사신
문, 의협신보
를 비롯해 각
종 문집, 잡지 등에 실은 수필을
모았다.
'마리아의 초행길'에는 후성일
보에 게재한 '미국견문기', 보건신

문에 연재한 '열린 본 중국', 의사
신문을 통해 소개한 '러시아 여적'
 등이 담겨 있다. <עד민간·비매
월>

통일을 빨리 잘 하려면
-한6상서운본

남북통일
문제를 6자
회담에 정식
추가 의제로
상정하여 남
한, 북한, 미
국, 중국, 일
본, 러시아 6
자 간의 한반도 집단안전보장조약
의 체결에 앞장 설 것을 정부에 촉
구하는 1천만명 국민서명운동본부
(한6상서운본 대표 崔善衡 행정
53-59)가 펴낸 '통일을 빨리 잘
하려면' 창간호.
남북통일 문제 6자 회담 상정이
유·논의사항과 한반도 통일을 위
한 天時, 地利, 人和에 관한 특
집, 통일촉진 서명운동 체현 소감
 등이 담겨있다. <광양사·간·값

20,000원)
900일간의 폭풍 사랑
-송웅달 지음

KBS 대전
방송총국 과
하프프로젝트
프로듀서인
송웅달(사학
89-96) 동문
이 2005년 3
월 KBS '생
로병사의 비밀' 1백회 기념으로
방송된 감성과학다큐멘터리 '사랑'
(3부작)의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이며
인류역사를 이끄는 본질인 사랑은
무엇인지, 열정과 사랑, 연애와
우정의 차이는 무엇인지, 우리가
스킨십을 갈망하는 이유는 무엇인
가 등에 관한 내용을 9개화로 결
집한 책으로 펴냈다.
또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사
랑의 신비로움을 알고 더 많이 더
우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
하고 인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자 했다. <경향사·간·값
12,000원>

형산은 강물과
다투지 않는다
-洪東善 지음

홍1洪東
善(임학 56-
61 생활협동
조합중앙회
명예회장·영
동지방자치회
공동회장)등
문이 마녀편
입학인의 길에 나선지 50여 년의
자전적 경험을 토대로 회고한 산
림 생령 에세이.
洪東善은 이 책에서 산과 나무
와 더불어 살면서 그동안 몸감아
왔던 협동조합운동이나 시민운동
도 결국은 '인생의 숲 가꾸기'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며, 또
그 일이 바로 모든 것을 살리는 생
명운동이라고 역설한다. <화남·값
12,000원>

장학빌딩 건립기금을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50억원

△임평수(기계공학48-52)

◆15억원

△신명규(생물교육48-54)

◆10억원

△강신호(의학48-52)

△곽영길(토목공학56-60)

△김상하(정치학45-49)

△김은중(경제학59-63)

△김중남(사회사업66-70)

△김형주(토목공학46-50)

△신창재(의학72-78)

△오동영(조선항공54업)

·김찬수(치의학56-60)

△정재경(상학61-66)

△정팔도(AIP 1기)

△홍성대(수학57-63)

◆3억원

△이길여(의학51-57)

◆1억원

△강승길(법학54-58)

△김두희(물리학52업)

△김문현(상학58-64)

△김정철(건축학52-56)

·김정식(건축학54-58)

△김창식(전기공학53-57)

△나공목(상학56-61)

△남정현(건축학57-61)

△노인환(경제학54-58)

·최한명화(가정교육60졸)

△류동희(기계공학53-57)

△명태현(기계공학46-50)

△박성훈(기계공학58-63)

△박식상(AIC 9기)

△박희백(의학51-57)

△서정화(법학51-55)

△안성철(행정학58-63)

△최오윤현(섬유공학7-71)

△오홍조(치의학56-61)

△유인성(기계공학58-62)

△유상부(토목공학60-64)

△이금기(약학55-59)

△이수범(행정학56-60)

△이예식(약학46-49)

△이준행(섬유공학48-54)

△이지호(의학77-83)

△이해원(행정학51-55)

△이준행(의학69-76)

△전동용(수의학52-56)

△정충시(화학공학72-76)

△조병우(섬유공학59-64)

△최두형(행정학51-55)

△최상훈(기계공학54-58)

△최희장(섬유공학58-64)

△홍상욱(원예학83-87)

△SNUA웨딩플래너센터

◆6천만원

△엄병운(의교학60-64)

◆5천만원

△공대식(기계공학56-60)

△김정희(약학57-61)

△김종현(경제학55-59)

△류재명(AMP 34기)

△마국철(공업교육68-72)

△안 훈(수의학53-57)

△유종배(법학50-54)

△이승준(섬유공학56-60)

·이정원(자원공학67졸)

△이운주(의학83-87)

·오지은(인류학83-87)

△이재원(상학55-59)

△이종대(한문기상학60졸)

△이종현(경제학59-63)

△정재봉(사회사업60-64)

△지창수(상학55-59)

△하관익(의학57-63)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농대 그린장학회

△일산회 :

김진(의축산학59-65)

△한우리SJM

◆3천만원

△교원회(기계공학48졸)

△박종일(영어교육60-64)

△김중환(의학69-76)

△심형운(토목공학52-56)

△원정수(건축학53-57)

·지 순(건축학54-58)

△유석홍(무역학61-65)

·박영희(기약70졸)

◆2천만원

△강학순(기계공학64-68)

△김원일(건축학61-65)

·최미혜(상학66-70)

△김재백(약학52-56)

△윤세국(경제학45-51)

◆1천5백만원

△김철순(조경학76-83)

◆1천1백만원

△장해남(법학72-76)

◆1천80만원

△서병태(의학54-60)

△조내규(약학58-62)

◆1천60만원

△김정현(치의학60-66)

△박준옥(약학55-59)

◆1천만원

△강용현(법학71-78)

△강행연(토목공학61-65)

△관동은(GIP 4기)

△권혁웅(불어불문59-63)

△금진호(법학50-58)

△김 철(기계공학64-68)

△김기춘(법학58-62)

△김두만(상학60-63)

△김백준(수학62-66)

△김선양(중어중문64-88)

△김연호(화학공학71-75)

△김영갑(법학74-78)

△김영식(경제학60-66)

△김민배(동물학55-60)

△김용중(약학64-71)

△김윤택(경대원68-70)

△김일섭(경영학64-69)

△변상현(의학51-57)

△성백전(토목공학52-56)

△송명호(자원공학59-65)

△신방호(경제학67-71)

△신윤식(사학55-59)

△심이택(화학공학57-63)

△양배덕(전기공학57-61)

△영기영(사회학70-74)

△오용섭(임학60-66)

△윤영식(경제학58-64)

△이강수(상학51-55)

△이경호(행정학61-65)

△이계우(행정학58-63)

△이병형(화학67-71)

△이상현(정치학64-68)

△이영필(항공공학66-71)

△이재후(법학58-62)

△이진구(임학60-64)

△이진규(치의학78-84)

△이창기(약학55-59)

△이형하(법학74-78)

△장무환(경제학45-51)

△장세권(농공학70-76)

△장자준(의학70-77)

△조정훈(자원공학75-81)

△최나해(상학52-56)

△최선진(사회교육75-79)

△최승철(기계공학66-70)

△최정길(금속공학52-56)

△최준기(조선항공57-61)

△하명기(정치학44-48)

△합정호(행정학53-57)

△허성길(경제학60-64)

△홍순자(독어교육61-65)

△전복지부동창회

(이상 2005년 10월 1일

~2007년 3월 23일 출연해

주신 분)

◆1백10만원

△허신영(농경제학62-66)

◆1백만원

△김용찬(농화학57-61)

△변영삼(금속공학77-81)

△윤홍식(물리교육56-60)

◆20만원

△문명호(영어영문59-64)

△이영운(수학교육58-62)

△전임호(가정관리81-85)

◆12만원

△정대수(신대원61-70)

◆10만원

△박용진(금속공학51-55)

△박인식(교육학48-53)

△신동소(약학53-57)

△신윤하(공업교육63-68)

△열명배(경제학75-79)

△전쌍식(사회교육87-92)

△홍종진(농공학57-64)

(이상 2007년 2월 24일

~2007년 3월 23일 출연해

주신 분)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07년 2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07. 1. 26.~2. 6.)·일반(07. 1. 24.~1. 29)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마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평생회비

(이사)

△강창오 공대②
△고영백 외대②
△김동규 법대②
△김병희 을대②
△김완주 문리②
△김현길 약대②
△박영일 상대②
△송대영 공대②
△심재선 상대②
△원형재 공대②
△이강소 마대②
△이상일 약대②
△이윤춘 공대②
△이호성 사대②
△임재수 상대②
△정창호 문리②
△조태문 공대②
△최석춘 농대②
△최창식 AIP②
△황승진 대원②

(일반)

△강대수 사회②
△강대식 AIP②
△강홍주 법대②
△곽희철 AIP②
△권자윤 차대②
△김광준 문리②
△김광준 사대②
△김기현 (行務)②
△김병현 공대②
△김상진 상대②
△김기근 사대②
△김영숙 을대②
△김영준 사대②
△김영표 문리②
△김종진 외대②
△김정준 을대②
△김현식 자연②
△김희자 을대②
△김광일 마대②
△박동운 법대②
△박수경 (院務)②
△박용진 AIP②
△박용진 사대②
△박철순 AIP②
△원치영 외대②
△배노현 공대②
△서근철 공대②
△서정희 사대②
△소재훈 인문②
△손준규 문리②
△송승진 문리②
△심일학 을대②
△안경진 藥務②
△양민호 공대②
△양재만 사대②
△유수정 농대②
△유윤선 인문②

△윤 탁 외대②
△이규춘 외대②
△이동시 AIP②
△이병성 사회②
△이우재 ACD②
△이원재 차대②
△이정식 공대②
△이정호 법대②
△이종아 AMP②
△이종우 공대②
△이호정 JIP②
△임병진 GLP②
△정화자 문리②
△전용수 상대②
△정우창 농대②
△정인근 AMP②
△조경호 大務②
△최경길 외대②
△최갑길 藥務②
△최재형 법대②
△한경준 사회②
△한승복 사회②
△홍대식 법대②
△황순국 공대②

이 사

◆인문대 △김병준② △나현영②
△배준동② △오세준② △이인용②
△이택기② △홍철호②
◆사대 △김 열② △김석기②
△박경재② △박창식② △조현래②
△최익순② △황기호②
◆자연대 △이병홍② △이신두②
◆고대 △박민희②
◆경대 △강홍규② △기준②
△김석호② △김의준② △박기환②
△서정희② △신윤삼② △임근상②
△하태형②
◆공대 △공병재② △김복호②
△김경화② △김기남② △김덕태②
△김상연② △김석철② △김선복②
△김재만② △김정기② △김종근②
△김종진② △김철필② △김주호②
△김준호② △김학재② △김현종②
△노철관② △마상덕② △문영학②
△문정석② △문홍갑② △민정식②
△민정환② △박동영② △박용준②
△박종호② △박진배② △박조견②
△배부원② △서정민② △선석문②
△신동식② △신동주② △신원기②
△신정환② △안재철② △오병권②
△오정일② △원성달② △유병철②
△윤세현② △윤송하② △이 선②
△이대원② △이민희② △이봉현②
△이상봉② △이석재② △이승국②
△이영필② △이영우② △이윤표②
△이주선② △이정봉② △정진양②

△정학순② △정익주② △정호균②
△정호상② △조덕상② △주기태②
△진금택② △최상호② △최영식②
△최진갑② △최철구② △한재수②
△한정훈② △황대석② △황상일②
◆농대 △조소상② △김광호②
△김근영② △김기혁② △김동태②
△김사일② △김영진② △박금주②
△박동우② △박승호② △박종주②
△박철만② △박준호② △송경민②
△송재관② △신명철② △오봉국②
△유상근② △유희진② △이도경②
△이병일② △이병철② △이상용②
△이영호② △이재진② △이철관②
△이혜근② △이정수② △전진덕②
△정창주② △조민식② △채수준②
△허현태②
◆문리대 △김광식② △김병익②
△김상호② △김종택② △김재실②
△김태수② △김지숙② △박남춘②
△박석홍② △박성표② △박영배②
△박의승② △석준형② △성희용②
△우재환② △위인숙② △유종탁②
△이상우② △이재남② △이종영②
△이종환② △이택순② △이효원②
△인태오② △임석진② △정정환②
△정두부② △정영국② △정의용②
△차홍봉② △전상덕② △최병민②
△홍종용②

◆미대 △노숙자② △박재호②
△송복화② △안종문② △이영진②
△이종득② △박병배②
◆법대 △대재선② △강민수②
△강영규② △강용구② △강원일②
△강태형② △강희복② △경종현②
△고광우② △구홍서② △권오윤②
△김강현② △김관택② △김능환②
△김도연② △김명종② △김성철②
△김승호② △김신택② △김영무②
△김영성② △김정환② △김용환②
△김의재② △김이수② △김이하②
△김재철② △김재호② △김정일②
△김중용② △김진수② △김진우②
△김태경② △김태조② △김태현②
△김영우② △김현주② △김철배②
△김정현② △김현수② △김철서②
△노정환② △명도승② △문인구②
△박경보② △박병민② △박상기②
△박성철② △박영하② △박용상②
△박원진② △박윤환② △박이환②
△박재관② △박정규② △박준서②
△박희태② △배 도② △변동준②
△서광하② △서규택② △서문양②
△서원태② △송근종② △송진준②
△심상철② △심상철② △안상수②
△이현문② △이종택② △이성현②
△여동영② △여상조② △오경락②
△원은섭② △유동윤② △유규오②
△이상준② △이상철② △이석형②
△이선우② △이정수② △이영준②
△이외수② △이원호② △이재원②

△이재준② △이진배② △이태운②
△이한성② △임서빈② △장병규②
△장준철② △장정호② △정경용②
△정구환② △정문화② △정세용②
△정연조② △정용민② △정한상②
△정해주② △제치룡② △조가윤②
△조규환② △조소봉② △조우현②
△조현빌② △최상대② △최세관②
△최철국② △한 민② △한경국②
△한승희② △현순도② △홍영구②
◆사대 △강영상② △강철용②
△김해숙② △곽수상② △국해용②
△권 권② △권상철② △김상국②
△김영진② △김재호② △김진기②
△김진영② △김원일② △노갑기②
△류근권② △민경현② △민홍기②
△박종세② △박주순② △박지모②
△성 현② △송대성② △유서경②
△이민지② △이석우② △이승원②
△이영대② △이서익② △이준동②
△이혜숙② △임창진② △임정원②
△정덕지② △최병주② △최영성②
△홍철근②
◆상대 △강진우② △고도모②
△고일상② △김기배② △김기종②
△김보명② △김대식② △김덕명②
△김기철② △김석규② △김원기②
△김용기② △김원진② △김재철②
△김정우② △김정호② △김종호②
△김정수② △김기두② △노인원②
△문철환② △문화보② △민경재②
△박길부② △박경주② △박조호②
△한기일② △송지민② △신세강②
△신평재② △우두현② △우원식②
△원우식② △유재욱② △유용석②
△이갑현② △이계욱② △이관규②
△이동원② △이성근② △이성철②
△이용이② △이일환② △이준용②
△이종식② △이한희② △정민호②
△장병욱② △전병환② △전찬우②
△장병호② △장주호② △정태욱②
△제민수② △조대연② △조덕현②
△김영옥② △최병희② △한병무②
△한찬수② △홍민표② △황규백②
△황문환②

◆생활대 △염명순②
◆수외대 △김성훈② △박영찬②
△신도근② △이도환② △최병일②
◆약대 △강석진② △권경관②
△강상수② △강기수② △김진준②
△김한주② △남기동② △박종훈②
△박태동② △송창진② △신영철②
△신현하② △신희범② △오성환②
△이기명② △장대인② △정지석②
△조정식② △지현석② △조진관②
△홍기정②
◆음대 △민희정② △이동남②
△이창수② △전민호② △정홍지②
◆외대 △강대성② △고강희②
△권영현② △강광수② △고관영②
△김병진② △김병진② △김영덕②

△김종숙② △김진영② △김철주②
△김환규② △노상관② △문성무②
△문효준② △박동현② △박문갑②
△박상태② △박영태② △박인원②
△박원일② △방성호② △박은집②
△선덕영② △신 실② △심영보②
△양두범② △오승환② △유지문②
△윤광선② △이갑노② △이갑순②
△이강진② △이건용② △이관희②
△이범구② △이부영② △이순형②
△이름수② △장윤철② △전형식②
△정경태② △정진택② △조강희②
△차인식② △최경진② △최정훈②
△한동수② △한인환② △한준기②
△함의근② △홍정의② △홍정운②
△황효섭②
◆치대 △김기현② △김성곤②
△김영철② △김윤영② △김정자②
△김홍석② △박규대② △박상근②
△방수영② △서영수② △성준경②
△송영호② △안효일② △양일수②
△이정호② △임동욱② △정광현②
△정종선② △조성복② △최성근②
△황의경②
◆대학원 △고영일② △고창순②
△권혁철② △김재용② △윤용경②
△임유택② △정기희②
◆경대원 △김호봉② △장문인②
△전도진② △조정희②
◆보대원 △박희서② △이영남②
◆사대원 △이원성② △정경식②
◆형대원 △고충삼② △배문환②
△백상승② △신은익②
◆환대원 △김정윤② △민봉기②
△박봉우② △박형석② △이병재②
△장병현②
◆AMP △곽연구② △김교철②
△김현수② △박병수② △손창수②
△이상복② △최경희②
◆AIP △김병영② △김동하②
△김수기② △박상우② △박승욱②
△안정환② △양 명② △한승욱②
◆ACAD △김상현② △김창식②
△이성영② △정승희②
◆ABP △이판형②
◆SGS △김승규② △이창성②
△황용연②
◆APC △인무경②
◆HPM △서판석② △양우진②
△오국진② △공유승② △이강택②
◆AMPP △홍승두②
◆AIC △김동규② △김이동②
△김현식② △박준기② △이강택②
△이계성② △이일로② △조정규②
◆AFB △김규대②

일 반

◆인문대 △김성호② △김정균②
△노지운② △류동현② △박기태②
△서노원② △승미영② △신용진②
△오건철② △이재현② △정진기②
△조희태② △최은정② △최정호②
△추희영② △홍미애② △홍성범②
△황상선②
◆사대 △김기철② △김영성②
△김진관② △김홍석② △박용환②
△박지철② △배서환② △배준희②
△서철욱② △염재규② △오기원②
△유 경② △유남태② △유원준②
△이 석② △이기선② △이수형②

